

자료 안내

1. 본 자료는 ‘현자의 돌 생활과 윤리 봉투 모의고사 6회분 (2018년)’ 구매자분들을 위해 제작된 무료 학습 자료입니다.

(2018.10.14.자 알라딘 고등참고서 주간 4위, 60명의 최대 검토진이 참여한 고퀄리티 모의고사, 6회분 11700원 초저가 판매중)

2. 본 자료는 ‘수능 완성에서 꼭 봐야 하는 제시문 +실모1~5회 문항, 해설’ 모음 자료입니다.

3. 학습법:

- ① 자신이 약한 단원을 출력합니다.
- ② 수능까지 반복해서 봅니다.
- ③ N회독은 전체 N회독 보다는 모르는 부분이나 생소한 부분 등을 따로 정리해두고, 정리한 내용만 반복하는 것이 최종 마무리 학습에 효과적입니다.

4. 본 자료는 경제적 불평등이 교육의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제적 어려움이 삶의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돕고자, ‘교육 평등의 가치 실현’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5. 본 자료는 비 상업적 목적에 한정하여 자유롭게 배포하실 수 있습니다.(친구분들과 file을 공유하거나, 학교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등)

6. 본 자료에 수록된 기출 제시문과 해설의 저작권은 EBS와 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상업적 목적을 위한 불법 복제를 금합니다.

7. 자료 정오표: cucuzz.com 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1강. 응용 윤리와 윤리 문제의 탐구

1) 규범 윤리학과 메타 윤리학의 관계

도덕 철학은 규범 윤리학과 메타 윤리학으로 구분된다. 메타 윤리학은 규범 윤리학의 전제를 탐구한다. 만약 철학자가 도덕규범의 체계를 세우고 이러한 규범이 모든 사람에게 정당하게 구속력을 가진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도덕규범이 정당화될 수 있는 절차가 있고 또 자신도 이러한 절차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바꾸어 말해 그는 도덕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며 따라서 이러한 지식을 가능하다는 것을 가정한다. 메타 윤리학은 도덕 판단에서 '안다', '참인', '타당한', '정당화될 수 있는'과 같은 단어가 규범 윤리학에서도 사용되지만, 분명하고 주의 깊게 분석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말들을 분석하는 것을 과제로 삼는다. 따라서 메타 윤리학은 규범 윤리학에 논리적으로 선행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 폴 테일러, “윤리학의 기본 원리” -윤리학의 관계

→ 도덕 철학은 인간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보편적 원리를 탐구하는 규범 윤리학과 도덕적 언어의 분석과 도덕적 추론의 논리적 타당성 입증을 윤리학적 탐구의 본질로 삼는 메타 윤리학으로 구분된다. 메타 윤리학은 규범 윤리학의 전제를 탐구한다. 따라서 메타 윤리학은 규범 윤리학에 논리적으로 선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현대의 규범 윤리학은 이론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메타 윤리학적 지식을 활용하기도 한다.

2) 밀 토론의 필요성

전체적으로 볼 때 인류의 생각과 행동이 지금까지처럼 놀라울 정도로 이성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무슨 까닭일까? 인류가 이런 상태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인간 정신의 한 특징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지적 또는 도덕적 존재로서 인간이 보여 주는 모든 자랑스러운 것들의 근원, 즉 자신의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이렇게 된 것이다. 인간은 토론과 경험에 힘입어 자신의 과오를 고칠 수 있다. 경험만으로는 부족하다. 과거의 경험을 올바르게 해석하자면 토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잘못된 생각과 관행은 사실과 논쟁 앞에서 점차 그 힘을 잃게 된다.

- 밀, “자유론” -

→ 밀은 인간은 항상 인식과 판단에 있어 오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즉 인간은 잘못된 인식과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인식과 판단은 검토되고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무엇이 진리인지를 밝힐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토론이다. 우리는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과의 토론을 통해 어떤 의견이 옳은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 결국 밀은 인간은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과의 토론을 통해 오류 가능성을 줄이고 진리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온갖 논박을 거쳤지만 허점이 발견되지 않은 어떤 생각을 진리라고 가정하는 것과, 아예 그런 논박의 기회를 봉쇄하기 위해 그것을 진리로 가정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우리 생각에 대한 철저한 부정과 비판의 과정을 거친 뒤, 그래도 살아남은 생각에 입각해서 어떤 행동에 나선다면 그 행동의 타당성은 매우 높아질 것이다. 인간은 토론과 경험에 힘입어 자신의 과오를 고칠 수 있다. 경험만으로는 부족하다. 과거의 경험을 올바르게 해석하자면 토론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9p 5번 문항 제시문 (가)

2강. 윤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

1) 공리주의-현대 공리주의- 규칙 공리주의-‘규칙의 세 가지 수준’

가장 세련된 규칙 공리주의에서는 세 가지 수준의 규칙들이 행위를 인도한다. 가장 낮은 수준에서는 “거짓말하지 말라”, “해악을 끼치지 말라.”와 같은 공리를 극대화하는 경험 규칙들이 있다. 이런 경험 규칙들은 그것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지 않는 한 항상 준수되어야 한다. 그러나 1차적 규칙들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에는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중대한 해악을 야기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와 같은 2차적인 갈등 해결 규칙들에 호소해야 한다. 이 규칙의 위계의 맨 꼭대기에는 최종적 규칙이라고 불리는 3차 규칙이 있다. 이 최종적 규칙은 “다른 규칙이 적용되지 않을 때에는 당신의 최선의 판단에 비추어 보아 공리를 극대화하는 행위라고 생각되는 것을 행하라.”는 행위 공리주의의 원리이다.

-루이스 포이만, 제임스 피저, “윤리학”

규칙 공리주의에 따르면 공리의 원리에 의해 정당화되는 규칙을 옳은 행위로 본다.

공리주의에 의하면 “거짓말하지 말라”, “해악을 끼치지 말라.”와 같은 일상적인 도덕 규칙들은 사람들에게 대체로 유용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런데 그 규칙들이 서로 충돌하는 갈등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어느 규칙을 따르는 것이 공리의 원리에 더 충실할 것인지 따져 보아야 한다.

그러한 경우에 규칙 공리주의에서는 실제로 어떤 행위가 옳은 지를 공리의 원리에 직접 호소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2) 배려윤리

길리건의 배려 윤리

도덕 문제란 상충하는 권리들 중에서 어떤 것이 먼저이고 더 가치 있는 것인가를 따지는 데서 일어나는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갈등 상태에 있는 책임들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우선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데서부터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사고 양상보다는 상황적이고 담론적인 사고 양상이 요청된다. 이러한 도덕 개념은 배려의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서, 도덕 발달을 책임성과 관계성에 대한 이해에 기초를 두고 살피게 되어 있다.

-길리건 “다른 목소리로”

→ 제시문은 길리건의 글이다. 길리건은 배려의 윤리가 정의의 윤리에 비해

원리와 규칙이라는 개념보다는 책임과 관계라는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고 본다.

길리건에 따르면 배려의 윤리는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대상이나 추론 방식에 의존하기보다는 구체적 환경과 경험에 의존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배려 윤리학자들은 윤리적 결정이 상황의 특수성과 인간관계, 책임 등을 고려하여 내려지며, 이는 ‘돌보는 행위’로 표현된다고 보았다.

“나는 해야 해.”는 의무적 명령이 아니라 “나는 원한다.”와 함께 일어나는 감정이며, 이것은 바로 나를 도덕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원천인 도덕적 감정이다.

“나는 해야 해.”는 도덕적, 윤리적 의무가 아니라 욕망에서 나온 “나는 해야 해.”이다. 배려의 근본적인 상황은 자연적인 것이다.

-수완 17p 배려 윤리

동정심, 따뜻한 배려, 조화, 타인에 대한 책임감 등은 도덕성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우리의 행위가 도덕적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배려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한다.

-수완 19p 배려 윤리

3) 책임윤리_ 요나스

요나스의 ‘공포의 발견술’

우리는 살인이 없었다면 아마 생명의 신성함을 알지 못했을지도 모르며, 또 “살인하지 말라.”는 도덕적 명령이 이 신성함을 분명하게 보여 주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거짓이 없었다면 진실의 가치를 알 수 없었을지도 모르며, 부자유가 없었다면 자유를 알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무엇 때문에’에 관한 지식은 모든 논리학이나 방법들과는 반대로 ‘무엇에 대해’ 경악하는가에서 발원한다. 이 경악의 대상은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나타나며, 그것은 지식에 선행하는 감정의 반항을 통해 이 대답에 의해 촉발되는 가치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친다. (...) 우리에게는 악(惡)의 인식이 선(善)의 인식보다 무한히 쉽다. 악의 인식은 더 직접적이며 설득력 있고, 의견의 차이에 별로 시달리지 않으며, 무엇보다 가식적이지 않다. (...)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가를 알아내기 위해 도덕 철학은 희망보다는 공포를 논의의 상대로 삼아야 한다.

-요나스 “책임의 원칙”

요나스는 “책임의 원칙”에서 ‘공포의 발견술’이라는 개념을 통해 “악의 인식이 선의 인식보다 무한히 쉽다.”라고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 “실제로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가를 알아내기 위해 도덕 철학은 희망보다는 공포를 논의의 상대로 삼아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인간 행위의 새로운 유형에 적합하고 새로운 유형의 행위 주체를 지향하는 명법은 다음과 같을 수 있다. “너의 행위의 결과가 지구상에서의 진정한 삶의 지속과 조화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이 명령을 소극적 형태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다. “너의 행위의 결과가 인간 생명의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 파괴적이지 않도록 행위 하라.” 또는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서술할 수 있다. “지구상에서 인류의 무한한 존속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조건들을 위협하지 말라.”

-수완 14p 닳은 풀 문제

● 우리는 기술이 할 수 있는 특정한 실험들을 금지하는 하나의 원칙을 발견하였다. 이 원칙은 결정적인 순간에 구원의 예측보다 불행의 예측을 더욱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규정의 타당성이 근거로 삼는 윤리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 전체의 실존과 본질은 도박 행위의 담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

●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과 죽음에 노출되어 있는 생명을 책임진다는 것은 생명에게 이러한 사태가 닥치지 않도록 예방하고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 지향적인 책임 윤리는 이미 행해진 것에 대한 보상의 책임이 아니라 일어날 수도 있는 일에 대한 배려와 예방의 책임을 요구한다.

-수완 16p 4번 문제

3강. 삶과 죽음의 윤리

1) 동양 사상가의 생사관

* 유교

- 죽음을 자연의 과정으로 여기면서도 애도하는 것을 마땅한 일로 여김
- 공자 : 죽음 그 자체나 사후 세계보다는 현실 세계에서 도덕적으로 실천하는 삶에 더 관심을 가짐

1 : 스승님! 귀신(鬼神)을 섬기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어찌 귀신을 섬길 수 있겠느냐?
 3 : 그렇다면 죽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 삶에 대해서도 아직 제대로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 백성이 의로운 일에 전력을 다하고 귀신을 공경하되 멀리하는 것이 지혜로움이니라.
 ▶ 공자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관심보다는 현세에서의 도덕적 삶을 위해 자신의 인격적 수양과 도덕적 실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도가

- 삶과 죽음을 기(氣)가 모이고 흩어지는 것으로 보면서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과정으로 이해함
- 삶과 죽음을 서로 연결된 순환 과정으로 봄
- 장자 : 삶과 죽음은 차별이 없으므로 죽음 앞에서 슬퍼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죽음에 초연함

죽음이란 삶의 시작[始]이며, 삶이란 죽음의 무리[徒]인 것이다. 누가 그 법도를 다스리고 있는지 아는가? 사람의 삶이란 기(氣)가 모인 것이다. 기가 모여 태어나게 되고 기가 흩어지면 죽는 것이다. 만약 죽음과 삶을 같은 무리로 본다면 우리에게 또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 장자는 기(氣)가 모여 태어나게 되고 기가 흩어지면 죽는다고 보았다. 이처럼 그는 삶과 죽음은 기의 변화에 의한 것이므로, 삶과 죽음을 분별의 대상으로 간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자연은 내게 형체를 주었고, 삶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고, 늙음으로 나를 편하게 하며, 죽음으로 나를 쉬게 해 준다. 그러므로 삶과 죽음이란 이렇듯 하나로 이어진 것이니, 내 삶을 좋다 함은 바로 내 죽음도 좋다고 하는 것이 된다.
 ▶ 장자는 삶과 죽음을 기(氣)가 모이고 흩어지는 과정이며 사계절의 운행과 같이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죽음에 대해 슬퍼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진인(真人)은 분별심으로 도를 버리지 않고, 인위로 자연을 돕지 않는다. 자연은 삶을 주어 수고하게 하고, 죽음을 주어 쉬게 한다.

* 도교 : 자연을 따르는 수련을 통해 불로장생을 추구함

* 불교 : 죽음을 생(生)?노(老)?병(病)과 더불어 대표적인 고통이며 현실 세계로부터 벗어나 또 다른 세계로 윤회하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이해함

모든 중생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니 목숨이란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업(業)에 따라 중생들은 제각각 갈 것이니 공덕(公德)과 사악함이 결실대로 간다. 악업을 지은 중생들은 악처(惡處)로 갈 것이고, 공덕을 지은 중생들은 선처(善處)로 간다. 그러므로 살아 있는 모든 생명에게는 공덕이 저세상에서의 기반이다.

▶ 석가모니는 모든 사람은 죽게 되며 죽음은 현실 세계로부터 벗어나 또 다른 세계로 윤회하게 됨을 의미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윤회의 과정에서 인간의 공덕과 사악함은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한다고 보았다.

2) 서양 사상가의 생사관

* 플라톤 : 육체에 갇혀 있는 영혼이 죽음을 통해 영원불변한 이데아의 세계로 들어감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가 갈구하는 지혜를 얻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무엇인가를 순수하게 인식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육체로부터 자유롭게 해서 대상들 자체를 영혼에 의해서만 바라보아야 한다.

▶ 죽음을 통해 영혼이 육체의 감옥에서 벗어나 참된 인식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그는 인간이 육체로부터 떠났을 때에야 오로지 영혼만을 사용하여 사물 그 자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에피쿠로스 : 우리는 죽음을 경험할 수 없으므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

현자(賢者)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삶이 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죽음도 악으로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긴 삶이 아니라 즐거운 시간을 향유하려고 노력한다.

▶ 에피쿠로스는 인간이 살아 있는 동안은 아직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어있는 상태에서는 죽음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죽음은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 모두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산 사람에게는 아직 죽음이 오지 않았고, 죽은 사람은 이미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게 되면 이것은 우리에게 불멸에 대한 갈망을 제거시켜 준다.

“죽음은 두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 현자는 삶을 도피하려고 하지 않으며, 삶의 종단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삶이 그에게 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삶의 부재가 어떤 악으로 생각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 에피쿠로스는 ‘죽음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게 되면 이러한 생각이 우리에게 불멸에 대한 갈망을 제거시켜 주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생각도 즐겁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실전 모의고사 2회 죽음관

- 주의해야 할 부분: 하이데거는 올해 6평에도 9평에도 출제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수능과 평가원에서 출제되지 않았다. 수능에서 나올 확률은 낮다. 하이데거의 이론은 깊게 파면 어렵다. 수완에 나와 있는 내용 정도만 숙지하면 된다.

- 제시문

에피쿠로스 : 죽음은 두려운 일이 아니다. 죽음은 감각이 상실된 것이므로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산 사람에게에는 아직 죽음이 오지 않았고, 죽은 사람은 이미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이데거 : 인간은 죽음에 앞질러 가 보기로 결단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고유한 존재가 된다. 아직 오지 않은 죽음으로 미리 가 보는 것은 본래적 실존을 회복하는 전제가 된다.

- 선지

- ① 갑은 죽음이란 감각의 소멸이기에 경험할수 없다고 본다.
- ② 갑은 영혼이 육체의 제약을 벗어날 때 삶과 죽음의 진리를 통찰할 수 있다고 본다.
- ③ 을은 인간이 죽음에 대한 자각을 통해 참된 실존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 ④ 을은 인간이 자신의 유한성에 대한 자각을 통해 본래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본다.
- ⑤ 갑은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벗어남을, 을은 죽음과 대면함으로써 삶을 주체적으로 살 수 있음을 강조한다.

- 해설: 에피쿠로스와 하이데거의 죽음관 이해

- 문제분석 : 갑은 에피쿠로스, 을은 하이데거이다. 에피쿠로스는 살아있는 동안 죽음은 오지 않았고, 죽으면 이미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벗어날 것을 강조하였다.

하이데거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죽음을 미리 앞질러 가 죽음과 대면함으로써 본래적 실존을 회복할 것을 강조하였다.

- 정답찾기 : ② 에피쿠로스는 사후에도 영혼이 남아 활동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 오답피하기

- ① 에피쿠로스는 유물론의 관점을 수용하여, 죽음은 감각이 소멸되는 것이므로 경험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았다.
- ③ 하이데거는 죽음에 대한 자각이 진실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았다.
- ④ 하이데거는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자각, 즉 죽음에 대한 자각을 통해 본래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⑤ 에피쿠로스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갖는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하이데거는 죽음과 마주 대하여 참된 실존을 회복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좀 더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

실전 모의고사 3회 죽음관

- 주의해야 할 부분: 에피쿠로스의 죽음관은 수능과 평가원에서 빈출되는 내용입니다. 잘 확인하세요.

- 제시문: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에 익숙해져야 한다. 왜냐하면 선과 악은 우리의 감각 능력을 전제해야 하는데, 죽음은 바로 모든 감각 능력의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죽음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알기만 한다면, 우리 삶에 있을 것이라고 믿는 무제한적인 시간 개념과 불멸성의 개념을 제거함으로써 우리의 유한한 삶을 얼마든지 즐길 수 있다.

- 선지:

- ① 인간은 죽음을 수용하는 주체적 결단을 통해 참된 실존을 회복해야 한다.
- ② 인간은 죽음이 원인과 결과에 의한 끝없는 윤회의 과정임을 알아야 한다.
- ③ 인간의 유한한 삶에 신과 죽음이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 ④ 인간은 현세의 삶을 내세의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 ⑤ 인간은 죽음을 영혼이 육체로부터 해방되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 해설: 에피쿠로스의 죽음관 이해

문제분석 : 제시문의 사상가는 에피쿠로스이다. 그는 신(神)과 죽음이 유한한 인간의 즐거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답찾기 : ③ 에피쿠로스는 죽음을 인간의 감각 능력의 상실로 받아들이게 하여 죽음이나 신, 불멸성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고자 했다.

오답피하기 : ① 죽음을 수용하는 주체적 결단을 통해 참된 실존의 회복을 주장한 사상가는 하이데거이다.

② 죽음을 원인과 결과에 의한 윤회의 과정과 관련지어 이해하는 사상은 불교이다.

④ 에피쿠로스는 내세에서의 영원한 삶이 아니라 현세에서의 즐거운 삶, 즉 행복한 삶을 주장했다.

⑤ 죽음에 관한 플라톤의 입장이다.

실전 모의고사 4회 죽음관

- 주의해야 할 부분: 한 번 읽고 넘어가면 충분하다.

그런데 가사성(可死性)이라는 단어는 에피쿠로스의 용어로 체크해두고 가자. 가사성이란, 가 능할 가, 죽을 사, 성품(성질, 본성) 성이라고 해서 죽을 수 있는 본성이라고 보면 된다.(인 간의 필멸자로서의 본성)

- 제시문:

◎ 문제 : 죽음에 대한 갑, 을 사상가들의 관점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갑(에피쿠로스) :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게 되면, 가사 성(可死性)도 즐겁게 된다. 이것은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무한한 시간의 삶을 보태어 주기 때문이 아니라, 불멸에 대한 갈망을 제거시켜 주기 때문이다.

을(플라톤) : 죽음은 우리가 갈구하는 지혜를 얻게 한다. 왜냐하면 우리 들이 만약에 무엇인 가를 순수하게 인식하려고 한다면, 자신을 육체로부터 자유롭게 해서 대상들 자체를 영혼에 의해서만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 선지:

◎ 학생 답안

갑은 ㉠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며, 죽음이 오면 이미 우리는 존 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갑은 ㉡ 죽음은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 모두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을은 ㉢ 우리의 육체는 욕정과 욕망, 어리석음으로 우리 를 가득 차게 하여 순수한 생각을 방해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유로 을은 ㉣ 죽음을 육체 로부터의 영혼의 풀려남이며 분리라고 보았다. 한편 갑, 을은 모두 ㉤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 이 아니며 죽음을 통해 영원불변한 진리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았다.

- 해설: 죽음에 대한 에피쿠로스와 플라톤의 관점 비교

- 문제분석 : 갑은 에피쿠로스, 을은 플라톤이다. 에피쿠로스는 인간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어 있는 상태에서는 죽음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죽 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플라톤은 죽음을 통해 영혼이 육체에서 벗어나 순수 한 인식을 통해 진리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 정답찾기 : ㉢ 에피쿠로스와 플라톤은 모두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죽음을 통해 영원불변한 진리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본 것은 플라톤만의 입장이다. 에 피쿠로스는 죽음 이후에는 인식과 감각이 소멸한다고 보았다.

- 오답피하기 : ㉠ 에피쿠로스는 인간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죽음을 경험할 수 없고, 죽어 있는 상태에서는 죽음을 의식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 에피쿠로스는 산 사람에게는 아직 죽음이 오지 않았고, 죽은 사람은 이미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은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 모두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보았다.

㉣ 플라톤은 육체적 욕망이 지혜의 활동을 방해한다고 주장하며 죽음을 육체로부터의 해방 으로 보았다. ㉤ 플라톤은 죽음을 통해 영혼이 육체의 감옥에서 벗어나 참된 인식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실전 모의고사 5회 죽음관

- 주의해야 할 부분: “에피쿠로스는 인간이 죽으면 영혼도 소멸한다고 본다.” 부분을 주의할 것. 에피쿠로스는 영혼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그 영혼조차 원자로 이뤄져있다고 봤다.

- 제시문:

갑(플라톤) : 사유는 감각이 정신을 괴롭히는 일이 전혀 없을 때, 가장 잘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영혼이 육체를 떠나 될 수 있는 대로 그것과 상관하지 않을 때, 영혼이 육체적 감각이나 욕망을 전혀 갖지 않고 참으로 존재하는 것을 추구할 때 가장 잘 사유하게 된다.

을(에피쿠로스) : 죽음은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 모두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산 사람에게는 아직 죽음이 오지 않았고, 죽은 사람은 이미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자는 삶을 도피하려고 하지도 않으며, 삶의 종단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삶이 그에게 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삶의 부재가 어떤 악으로 생각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 선지:

- ① 갑 : 죽음은 모든 감각과 사고를 멈추게 한다.
- ② 갑 : 죽음은 순수한 영혼이 참된 실재(實在)를 인식할 수 있게 해 준다.
- ③ 을 : 죽음은 영혼이 고통 없이 평화를 누리게 해 준다.
- ④ 을 : 죽음은 영혼에게 감각에서 벗어나 진리를 파악하게 해주는 기회를 준다.
- ⑤ 갑, 을 : 죽음은 사계절의 순환처럼 기(氣)가 흩어지고 모이는 과정의 일부일 뿐이다.

- 해설: 플라톤과 에피쿠로스의 죽음관 비교

- 문제분석 : 갑은 플라톤이고, 을은 에피쿠로스이다. 플라톤은 죽음은 영혼의 육체로부터의 해방이며, 참된 실재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에피쿠로스는 죽음은 감각의 근거인 원자의 해체로서 인간은 죽음을 느낄 수 없다고 본다.

- 정답찾기 : ② 플라톤은 죽음을 통해 육체로부터 해방된 영혼은 참된 실재를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고 본다.

- 오답피하기

- ① 플라톤에 따르면 죽음은 영혼이 육체의 영향에서 벗어나 순수한 이성적 사고를 가능하게 한다.
- ③ 에피쿠로스는 인간이 죽으면 영혼도 소멸한다고 본다.
- ④ 플라톤의 입장에 해당한다.
- ⑤ 장자의 입장에 해당한다.

* 하이데거 :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자각함으로써 자기의 본래적이고 고유한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음

사람은 죽음과 함께 '더 이상 세계-내-존재가 아니게' 된다. 죽음이란 '세상을 떠나는 것'이며, 이는 더 이상 '세계 안에서 존재자들과 관계하는 존재가 아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현존재가 죽음과 함께 생명이 없는 물질적인 사물이나 동물의 시체와 같은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죽음과 함께 현존재는 '고인(故人)'이 되며, 그러한 존재로서 장례, 매장 등의 예식을 통해서 추모해야 할 존재가 된다. 고인의 유족들은 그를 '경건하게 추모하면서' 그와 함께 존재한다. 이와 같이 현존재는 죽어서도 현존재와의 공동 존재를 유지할 수 있다.

-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

▶ 하이데거는 고인(故人)은 우리의 '세계'를 떠나 '세계'를 뒤에 남겨 놓았으며, 뒤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장례, 매장 등의 예식을 통해 이 '세계'에서 아직 고인과 더불어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하이데거의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현존재가 사망이라는 의미에서 세계에서 사라지는 것은 그저 살아 있는 것[단순한 생명체]이 '세계'에서 사라지는 것과 구별되어야 한다. 즉 현존재의 끝남은 생명의 종말과 구별되어야 한다.

죽음이란 '세상을 떠나는 것'이며, 이는 더 이상 '세계 안에서 존재자들과 관계하는 존재가 아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현존재가 죽음과 함께 생명이 없는 동물의 시체와 같이 되는 것은 아니다. 죽음과 함께 현존재는 '고인(故人)'이 되며, 그러한 존재로서 장례, 매장 등의 예식을 통해서 추모해야 할 존재가 된다. 고인의 유족들은 그를 '경건하게 추모하면서' 그와 함께 존재한다.

▶ 제시문은 타인의 죽음에 대한 하이데거의 입장이다. 하이데거는 현존재는 죽어서도 공동 존재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공동 존재는 언제나 동일한 세계 내의 공동 존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고인은 죽음 이후에도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았던 세계를 자신 뒤에 남겨 놓으며 살아 있는 자들은 이러한 세계로부터 고인과 함께 있을 수 있다(고인의 유품을 보면서 고인을 생각하고 슬퍼할 수 있는 것처럼)고 보았다. 이러한 하이데거의 관점에서 볼 때 현존재가 사망의 의미에서 세계에서 사라지는 것은 그저 살아 있는 것(단순한 생명체)이 세계에서 사라지는 것과 구별되어야 한다.

* 야스퍼스 : 죽음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한계 상황임

실전 모의고사 1회 12번: 죽음관

- 주의해야 할 부분: 하이데거의 죽음관은 아직 평가원이나 수능에서 출제되지 않았다. 만약 이번 9평에 하이데거가 출제된다면 수능에서도 하이데거가 나온다고 보면 된다. 9평 출제 경향을 보고 심층적으로 공부해야 할지, 그냥 기본만 해도 될지 판단해야 함.

- 제시문

플라톤 : 철학자는 육체를 신통치 않게 여기며, 그 영혼은 육체를 피하여 홀로 있으려 한다. 사유는 청각이나 시각, 고통, 쾌락이 정신을 괴롭히는 일이 없는 죽음 이후에 가장 잘되는 것 이다.

영혼은 육체적 감각이나 욕망을 전혀 갖지 않고 참으로 존재하는 것을 추구할 때 가장 잘 사유하게 된다.

하이데거 : 인간은 언제나 죽음과 함께하고 있는 현존재이다. 인간에게 죽음은 고유한 것이며,

결코 남과 바꿀 수 없는, 반드시 찾아오는, 그리고 그것을 초월해서 살 수 없는 가능성이다. 인간은 죽음을 외면하지 말고 항상 죽음은 자기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 선지

- ① 플라톤은 죽음을 내세에서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고 본다.
- ② 플라톤은 죽음을 순수한 인식을 불가능하게 하는 감옥으로 본다.
- ③ 하이데거는 죽음을 인지하면 누구나 죽음을 면할 수 있다고 본다.
- ④ 하이데거는 죽음을 올바르게 인식함으로써 삶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다고 본다.

- 해설: 죽음에 대한 입장 비교

문제분석 : 갑은 플라톤, 을은 하이데거이다. 플라톤은 죽음을 영혼이 육체적 감각으로부터 해방된 상태라고 본다.

하이데거는 인간이 죽음을 인지함으로써 실존을 자각할 수 있다고 본다.

정답찾기:

- ④ 하이데거는 죽음에 대한 인식이 현존재를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된다고 본다.

오답피하기:

- ① 플라톤은 죽음 이후에는 육체적 감각이나 욕망을 갖지 않는다고 본다.
- ② 플라톤은 죽음 이후에 순수한 인식이 가능하다고 본다.
- ③ 하이데거는 어느 누구도 죽음을 면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 ⑤ 하이데거는 살아 있는 동안 죽음을 직시함으로써 실존을 자각할 수 있다고 본다.

4강. 생명 과학과 윤리

1) 동물 실험

[동물실험의 윤리적 쟁점]

- ① 동물 실험의 필요성 : 인체 실험 결과와 유사하고 인체 실험 대상자를 구하기 힘든 현실을 고려해서 동물을 실험 대상으로 삼음
- ②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견해
 - 동물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를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음
 - 인간의 이익을 위해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를 희생시켜서는 안 됨

[싱어의 동물 실험 관련 입장]

우리가 인간에 대해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또한 그것을 동물에게 확장하는 것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아기에게 일정량의 고통을 주는 것이 잘못이라고 한다면, 아무 이유 없이 동물에게 동일한 양의 고통을 주는 것 또한 잘못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동물 실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동물의 고통보다 동물 실험의 결과가 가져오는 인간의 행복의 크기가 더 크다는 이유 때문에 동물 실험이 옹호될 수는 없다.

[수능완성 3강 9번 문항]

- ▶ 싱어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동물의 고통을 주는 동물 실험에 반대했다.
- cf) 그러나 동물 실험이 허용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2) 요나스 ‘인간 복제를 포함한 생물학적 조작’

인간 복제를 포함한 생물학적 조작에 대한 요나스의 입장

생물학적 조작의 전 영역과 관련하여 이제 내가 가장 엄격한 도덕적인 논거를 통해 내린 결론은 타인에 대한 모든 무책임한 행위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유전적 결함의 예방이라는 소극적 차원을 넘어서 인간에 대한 모든 생물학적 조작의 윤리적 딜레마는 우리의 후손이 자신을 산출한 자를 찾아내어 잘못을 따질 수 없고, 후손에게 대답하고 사죄할 어떤 사람도 존재하지 않으며, 어떤 수단을 통해서도 결과를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에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처벌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범죄 영역을 보게 된다. 점점 커지는 생물학적 기술의 권력을 인간에게 사용하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불행의 예방만이 허용되고 새로운 종류의 행복을 위한 어떤 시도도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

- 요나스, “기술 의학 윤리” -

- ▶ 요나스는 유전자 조작에 의한 인간 복제를 무책임한 것이라고 보았다.
- 그는 인간 복제의 위험성을 미래 세대에 대한 도덕적 책임의 관점에서 접근하였으며, 인간에게 적용되는 생물학적 기술은 불행을 예방할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생물학적 조작의 전 영역과 관련하여 이제 내가 가장 엄격한 도덕적인 논거를 통해 내린 결론은 타인에 대한 모든 무책임한 행위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유전적 결함의 예방이라는 소극적 차원을 넘어서 인간에 대한 모든 생물학적 조작의 윤리적 딜레마는 우리의 후손이 자신을 산출한 자를 찾아내어 잘못을 따질 수 없고, 후손에게 대답하고 사죄할 어떤 사람도 존재하지 않으며, 어떤 수단을 통해서도 결과를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에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처벌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범죄 영역을 보게 된다. 점점 커지는 생물학적 기술의 권력을 인간에게 사용하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불행의 예방만이 허용되고 새로운 종류의 행복을 위한 어떤 시도도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미래 세대에 대해 현세대가 책임져야 할 내용이다.

[수능완성 3강 6번 문항]

▶ 요나스 제시문으로 인간에 대한 생물학적 조작은 ‘유전적 결함의 예방’과 같은 소극적 차원의 ‘불행의 예방’은 허용될 수 있으나,

‘새로운 종류의 행복(유전자 개량)’은 허용될 수 없다는 내용이 출제되었다.

* 그런데, 필자가 직접 요나스가 쓴 『기술, 의학, 윤리』를 읽어보고 관련 논문들을 읽어본 결과,

요나스가 ‘유전적 결함의 예방’, ‘소극적 차원의 불행의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제시한 생물학적 조작은 과학기술을 통한 유전자 조작이라기보다는,

정관 수술같은 조치를 취해서, 유전자 결함이 있는 사람이 자식을 못 낳게 한다던지 하는 식의 방식에 가까웠다.

요나스는 직접적으로 유전 공학 기술을 통해 유전자를 조작하는 것은 ‘미지의 대상’을 다루는 것이므로, ‘치료’ 목적으로 활용하더라도 나중에 알고보니 미래 세대에게 큰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유전 공학의 적용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았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수준에서는 ‘제시문 독해’를 통해서 문항에 접근해야 한다.

올해 수능완성에서 나온 제시문으로 요나스의 입장을 정리해두면 된다.

5강. 성과 사랑의 윤리

1)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

에리히 프롬의 사랑: 적극적인 과정이자 끊임없이 학습하고 노력하여 개발되는 기술

에리히 프롬의 사랑에 대한 생각

사랑의 행위는 ‘소유 양식으로 말해지는가, 존재 양식으로 말해지는가’에 따라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사랑한다는 것은 생산적인 활동이다. 사랑이란 누군가를 배려하고 알고자 하며, 그에게 몰입하고 그 존재를 입증하며 그를 보고 즐거워하는 모든 것을 대표한다. 그것은 그를 소생시키며 그의 생동감을 증대시킨다. 사랑은 소생과 생장을 낳는 과정이다. 그러나 소유 양식으로 체험되는 사랑은 대상을 구속하고 가두며 지배함을 의미한다. 이런 종류의 사랑은 목을 조여서 마비시키고 질식시켜서 죽이는 행위이다.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상 사랑의 부재를 은폐하려는 내용의 오용된 표현일 뿐이다.

- 에리히 프롬, “소유냐, 존재냐” -

→ 에리히 프롬은 “사랑의 기술”에서 사랑의 능동적 성격과 함께 보호, 책임, 존경, 지식의 네 가지 요소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소유냐, 존재냐”에서는 소유 양식으로서의 사랑과 존재 양식으로서의 사랑을 구별하였고, 소유 양식으로서의 사랑은 구속과 지배로 나타나는 사랑이므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사랑을 배울 필요가 없다고 보는 태도는 사랑을 사랑하는 능력의 문제로 보지 않고 사랑하는 대상을 찾는 것이 어려울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사람들은 엄청난 기대에서 출발하지만 실패를 경험하곤 한다. 사랑의 실패를 극복하는 적절한 방법은 오직 하나뿐인 것 같다. 그것은 실패의 원인을 가려내고 사랑의 의미를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다. 최초의 조치는 삶이 기술(art)인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도 기술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사랑의 능동적 성격은 준다는 요소 외에도 언제나 모든 사랑의 형태에 공통된 어떤 기본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분명해진다. 이러한 요소들은 보호, 책임, 존경, 지식 등이다.

- 에리히 프롬 -

2) 밀과 보부아르의 성차별(수완 개념편에는 보부아르의 입장만 제시되어 있다.)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여자답다는 관념은 습관이나 유행에 따라 인위적으로 규정 된 것으로 외부에서 여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강요된다. 그런 여자다움도 시대와 함께 변화될 수 있는데, 남성들이 채택하는 표준에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 변화된다. 그러나 우월성은 결코 처음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다. 남녀는 자기들의 자유로부터 똑같은 영광을 이끌어 낼 수 있다.

- 보부아르 -

3) 칸트의 성 상품화 반대 입장

성 상품화에 대한 칸트의 입장

만약 사람의 이익을 위해 자기 자신을 타인의 성욕 충족을 위한 대상으로 삼는 데 동의한다면, 그래서 자기 자신을 타인의 욕구의 대상으로 만든다면, 이때 그는 마치 물건을 처분하듯이 자기 자신을 처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마치 고기로 허기를 채우듯이 자기 자신을 단지 미각을 만족시키기 위한 음식물로 취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타인의 욕구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성일 뿐 인간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부분적으로 자신의 인간성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도덕의 목적의 견지에서 볼 때 그의 인격은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익을 위해 자기 자신을 성욕 충족을 위해 쓰이는 물건처럼 내어 줄 권리가 없다. 왜냐하면 그 경우 그의 인간성은 타인에 의해 경향성의 만족을 위한 도구이자 물건으로 사용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 칸트, “윤리학 강의” -

칸트는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하라는 점에 근거하여 성매매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다. 자신의 성을 다른 사람의 욕구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은 인간성을 포기하는 행위이며 인격을 사물화 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을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이므로 칸트는 성매매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다고 보았다.

6강. 가족, 친구, 이웃 관계 윤리

1) 부부 관계 윤리

불 속의 어두운 곳은 양(陽) 속에 있는 음(陰)이다. 물의 겉은 검은빛이지만 그 속에 밝은 것은 음 속에 있는 양이다. 그러므로 물을 양이라 하고 불을 음이라 해도 된다. 음은 양을 바탕으로 삼고 양은 음을 바탕으로 삼는다. 물은 안이 밝고 겉이 어두우며 불은 안이 어둡고 겉이 밝다. 음과 양의 빼어난 기(氣)는 서로 자기 속에 감추어져 있다.

부부는 두 성(姓)의 결합으로 인한 관계이니, 백성을 태어나게 하는 시초이고, 모든 복의 근원이다 ... (중략) ... 진실로 한쪽은 씩씩한 태도로 임하여 하늘의 도리를 본받고, 다른 쪽은 유순한 태도로 몸가짐을 바르게 하여 땅의 순종하는 의리에 잘 따른다면 가정의 질서가 바로잡히는 것이다.

2) 형제 자매 간의 윤리

● 형제간에는 간격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음식과 의복은 마땅히 함께 하여야 한다. 한쪽은 굶주리고 다른 쪽은 배부르며 한쪽은 춥고 다른 쪽은 따뜻하다면 이는 한 몸의 두 팔과 두 다리[四肢]가 한쪽은 병들고 다른 쪽은 튼튼한 것과 같은 것이니, 몸과 마음이 어찌 편안할 수 있겠는가?

● 형제 은/는 같은 어버이에게서 태어난 사이로 골육의 지친(至親)이다.

● 형제는 나무에 비유한다면 뿌리는 같으나 가지는 다른 것이다. 서로 화합하여 길을 갈 때는 기러기처럼 나란히 가고 잠을 잘 때는 이불을 나란히 덮고 밥을 먹을 때는 밥상을 함께해야 한다.

3) 부모 자녀 간의 윤리

* 부모에게 간(諫)하는 목적과 방법

● 그대 무리 중 정직한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양을 몰래 훔친 것을 증언했지만, 우리 무리 중 정직한 사람은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 자식은 아버지를 위해 그 사실을 숨겼네. 정직은 그 속에 있다네.

● 자식은 부모가 부르시면 빨리 대답하여 늦지 않도록 한다. 부모가 연세 드시면 늦게 귀가 하지 않는다. 부모가 병환 중이시면 자식은 얼굴을 환하게 하지 않고, 웃되 잇몸을 보이는데 이르지 않으며, 노하되 꾸짖는 데 이르지 않는다.

● 부모를 섬기되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간(諫)해야 하니, 부모가 자식의 말을 따르지 않을 지라도 더욱 공경하고 어기지 않으며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 아버지에게 간하는 자식이 있다면 아버지가 불의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의롭지 않은 일에 당면하면 자식으로서 간하지 않으면 안 된다.

- 부모를 섬기되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간(諫)해야 하니, 부모가 자식의 말을 따르지 않을 지라도 더욱 공경하고 어기지 않으며, 수고롭되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 “논어” -
- 부모가 과실이 있거든 기운을 내리고 얼굴빛을 온화하게 하여 부드러운 소리로써 간한다. - “예기” -
- 만일 간하는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더욱 공경하고 더욱 효를 하여 기뻐하시면 다시 간한다. - “예기” -
- 아버지에게 다투어 간하는 자식이 있다면 불의(不義)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의롭지 않은 일에 당면하면 자식으로서 다투어 간하지 않으면 안 된다. - “효경” -

→ 유교에서는 부모가 옳지 않은 일을 행하여 죄를 얻으면 자식은 그것을 그냥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자식이 무조건 부모의 뜻에만 따름으로써 정의롭지 못한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은 효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았다.
 다만 온화한 표정과 부드러운 말로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부모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세속에서 이른바 효도하지 않는 것이 다섯 가지니, 그 사지(四肢)를 게을리하여 부모의 봉양을 돌보지 않음이 첫 번째요, 장기 두고 바둑 두며 술 마시기를 좋아하여 부모의 봉양을 돌보지 않음이 두 번째요, 재물을 좋아하며 처자를 사사로이 하여 부모의 봉양을 돌보지 않음이 세 번째요, 귀와 눈의 하고자 함에 따라 행동하여 부모를 욕되게 함이 네 번째요, 성질이 사나워서 부모를 위태롭게 함이 다섯 번째이다.

섬기는 일 중에 무엇이 가장 큼이 되는가? 아버이를 섬김이 큼이 된다. 지키는 일 중에 무엇이 가장 큼이 되는가? 몸을 지키는 것이다. 나는 몸의 지조를 잃지 않고서 그 아버이를 잘 섬긴 자를 들었지만, 몸을 잃고서 그 아버이를 잘 섬긴 자를 들어 보지 못했다. 섬기는 일 중에 무엇인들 섬김이 되지 않겠는가마는 아버이를 섬김이 섬김의 근본이요, 지키는 일 중에 무엇인들 지킴이 되지 않겠는가마는 몸을 지키는 것이 지킴의 근본이다.

부모가 한 일에 잘못을 탓할 때는 지나치게 엄격해서는 안 된다. 자식은 부모에게 마땅히 온화하고 순종하면서 올바른 길로 이끌어 의(義)를 얻도록 해야 한다. 자식이 따르지는 않고 가르치려 한다면 자식의 죄이다. 조용히 부모의 뜻을 따른다면 어찌 도가 없겠는가? 만약 자식이 굳고 강한 도를 펴서 부모의 잘못을 고치려 한다면 은혜와 의로움을 크게 해칠 것이다. 어찌 부모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들어가게 할 수 있겠는가? 자기를 굽히고 뜻을 유순하게 따르면서 몸을 바르게 하고 일이 잘 되도록 할 따름이다.

4) 친구 관계 윤리

- 친구를 사귄 때에는 반드시 학문을 좋아하고, 착한 행실을 좋아하고, 바르고 엄격하고, 문고 미더운 사람을 취해야 한다. 그러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바르게 경계하는 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나의 모자라는 점을 다스려야 할 것이다. 만일 게으르고, 놀기를 좋아하고, 유약하고, 아첨하고, 바르지 못한 사람이면 사귀어서는 안 된다.

● 완전한 친애는 선하고 덕에 있어 서로 닮은 사람들 사이의 친애이다. …(중략)…자기의 친구를 위하여 그에게 좋은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참된 의미에서 친구이다. …(중략) … 유용성 때문에 친구가 된 사람들은 이익을 다하면 서로 헤어진다. 그들은 서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이익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쾌락이나 유용성을 위해서는 선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들도 서로 친구가 될 수 있지만, 서로 인간 자신을 위해 친구일 수 있는 것은 오직 선한 사람들뿐이다. -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

→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친애(philia)는 선한 사람들 간의 사랑이다. 친구는 친애로써 맺어진 관계이며 진정한 친구란 이익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의 좋은 것(선)을 바라는 덕이 있는 사람이다.

● 아리스토텔레스: 완전한 친애(親愛)는 선하고 덕에 있어 서로 닮은 사람들 사이의 친애이다. … (중략) … 자기의 친구를 위하여 그에게 좋은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참된 의미에서 친구이다. … (중략) …유용성 때문에 친구가 된 사람들은 이익이 다하면 서로 헤어진다. 그들은 서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이익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쾌락이나 유용성을 위해서는 선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들도 서로 친구가 될 수 있지만, 서로 인간 자신을 위해 친구일 수 있는 것은 오직 선한 사람들뿐이다.

● 칸트: 우애는 두 인격이 서로 간에 평등한 사랑과 존경에 의해 하나 됨을 의미한다. 우애는 도덕적 선의지에 의해 하나가 된 사람들 각자가 복리에 동참하여 함께 나누는 이상적인 모습이다. 우애는 이념으로서 실행에서는 도달할 수 없지만 이성에 의해 그것에 도달하려고 애쓸 것이 부과되는 영예로운 의무 이다. … (중략) …도덕적인 우애는 서로 상대방에 대한 존경과 공존할 수 있는 한에서 그들의 속마음의 판단과 감각을 서로 열어 보임에 있어서 두 인격의 온전한 신뢰이다.

- 칸트, “윤리형이상학” -

→ 칸트에 따르면 친구는 선의지에 의해 하나가 된 사람들이다. 그는 상호적인 평등한 사랑과 존경에 의해 하나 되는 것을 우애라고 보았다.

● 칸트: 우애는 두 인격이 평등한 호혜적인 사랑과 존경에 의해 하나 됨을 의미한다. 우애는 도덕적 선의지에 의해 하나가 된 사람들 각자가 복리에 동참하여 함께 나누는 이상적인 모습이다. 우애는 이성에 의해 그것에 도달하려고 애쓸 것이 부과되는 영예로운 의무이다. … (중략)… 도덕적인 우애는 서로에 대한 존경과 공존할 수 있는 한에서 그들의 속마음의 판단과 감각을 서로 열어 보임에 있어서 두 인격의 온전한 신뢰이다.

7강. 과학 기술과 윤리

1) 과학 기술의 바람직한 활용을 위한 요나스의 책임 윤리

- (1) 내재적이고 본질적 가치를 지니는 모든 생명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 인간에게는 자신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 다른 존재에 대한 연대 책임이 있음
- (2) 자연환경과 미래 세대가 존속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과학 기술의 발전을 추구해야 함
- (3) 과학 기술의 발전이 먼 미래에 끼치게 될 결과를 예측하여 생명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함 → 지구상에서 인류의 생존에 방해되는 어떤 행위도 하지 말아야 하며, 그 행위의 결과가 생명이 살 수 있는 미래를 파괴하지 않도록 해야 함

호혜성에 기초하고 있는 전통적인 이념에 따르면 나의 의무는 다른 사람의 권리이며, 또 다른 사람의 권리는 나의 권리와 동일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이러한 이념은 우리의 목적에 대해 아무런 쓸모가 없다. 왜냐하면 이는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만이 권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 존재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근거로 권리를 말하지 않고, 생명의 내재적 가치와 성격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는다. 내가 주장하려는 윤리는 이 모든 것들과 관련되어 있다. 이 '책임 윤리'는 권리와 호혜성의 모든 이념과는 상관이 없다. 따라서 "미래 세대 또는 생명체는 나의 권리를 존중하는가?"와 같은 물음은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 제시문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과 죽음에 노출되어 있는 생명을 책임진다는 것은 생명에게 이러한 사태가 닥치지 않도록 예방하고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 지향적인 책임 윤리는 이미 행해진 것에 대한 보상의 책임이 아니라 일어날 수도 있는 일에 대한 배려와 예방의 책임, 즉 우리에게 책임 대상에 대한 배려와 그 대상이 처할 수 있는 사태를 예방하는 책임을 요구한다.

- ① 현세대는 미래 세대의 생존 가능성을 파괴하지 않아야 한다.
- ② 예견할 수 있는 모든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 ③ 자신의 행위의 결과가 다른 존재의 삶과 조화될 수 있어야 한다.
- ④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종들이 상호 책임을 져야 한다.
- ⑤ 과학 기술과 윤리와의 간극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윤리의 필요성을 이해해야 한다.

- 해설: 요나스는 인간이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는 것 자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무로 연결된다고 보았다. 그는 인간에게 자연과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제시하였다.

정답찾기 :

④ 요나스는 인간만이 다른 종들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보았다.

오답피하기:

- ① 요나스는 미래 세대의 생존을 고려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 ② 요나스는 미래 지향적 당위와 예견 가능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였다.
- ③ 요나스는 미래 세대 및 생태계 전체와의 조화를 강조하였다.
- ⑤ 요나스는 과학 기술의 발달과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기존 윤리와의 윤리적 공백을 극복해야 한다고 보았다.

- 주의해야 할 부분: 무난한 내용. ④, ⑤는 올해 6평에 출제된 내용이고, ①, ②는 새로 나온 선지. 일단 속지는 하자.

- 제시문

요나스: 무엇이 윤리의 나침반으로 기능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미리 사유된 위험 자체이다.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상황의 변화, 위험이 미칠 수 있는 전 지구적 범위, 인간의 몰락 과정에 대한 징조를 통해 윤리적 원칙들이 발견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들로부터 새로운 의무들이 도출될 수 있다. 이 의무는 책임이라는 개념을 통해 요약될 수 있다.

- 선지

- ① 미래 세대는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 ② 도덕 공동체를 연속적인 세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가?
- ③ 미래의 위험을 예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가?
- ④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은 책임을 져야 하는 당위로 연결되어야 가?
- ⑤ 행위의 동기가 선하다면 예측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가?

- 해설: 요나스의 책임 윤리 이해

- 문제분석 : 요나스는 기술이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윤리학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 새로운 윤리학은 미래 인간의 삶에 대한 성찰을 통해 책임의 원칙이라는 새로운 의무를 도출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이른바 ‘공포의 발견술’로 이름 붙인 미리 사유된 위험을 통해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였다.

- 정답찾기 : ⑤ 요나스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요나스는 예측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 오답피하기

- ① 요나스에 의하면 미래 세대도 현세대와 마찬가지로 도덕 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이다. 따라서 미래 세대도 도덕적 권리를 지닌 주체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 ② 요나스는 현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를 도덕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본다. 따라서 도덕 공동체는 현세대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포함하여 연속적인 세대로 이루어진다.
- ③ 요나스는 책임 윤리의 원칙들을 미리 사유된 위험 자체에서 찾았다. 따라서 현세대는 미래의 위험을 예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 ④ 요나스는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곧 책임을 져야한다는 당위로 연결된다고 본다.

실전 모의고사 3회 18번 요나스

- 주의해야 할 부분: 사실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인데, 지금까지 수능에서는 요나스의 책임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선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EBS에서는 요나스가 전제하는 '생명체의 특성'에 대해서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생명체의 자기 목적성이라든지, 고유한 가치, 정당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 자체로 존중받음. 등등의 개념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 제시문:

너의 행위의 결과가 지상에서의 진정한 인간적 삶의 지속과 양립할 수 있도록 행위 하라. 생명체는 자기의 고유한, 즉 어떤 정당화도 필요로 하지 않는 목적이며, 이 점에서 인간은 다른 생명체에 비해 어떤 우선권도 가지지 않는다.

- 선지:

- ① 인간의 생명체에 대한 책임은 호혜적 관계에서 비롯된다.
- ② 생명체의 자기 목적성은 그 자체로서 고유한 가치를 지닌다.
- ③ 생명체는 정당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기 목적성을 지닌다.
- ④ 현세대는 미래 세대에 대해 유대와 공감의 태도를 지녀야 한다.
- ⑤ 생명체로서 존재함은 인간의 생명체에 대한 책임의 전제 조건이다.

- 해설: 요나스의 책임 윤리 이해

문제분석 : 제시문은 요나스의 책임 윤리에 관한 것으로, 첫 번째 문장은 그의 새로운 정언 명령이고, 두 번째 문장은 그의 생명에 대한 목적론적 관점을 표현하고 있다.

정답찾기 : ① 요나스는 책임 윤리의 이념적 근거를 호혜성이 아닌 비호혜성에 둔다.

오답피하기 : ②, ③ 요나스는 생명체의 자기 목적성은 다른 어떤 정당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고유한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한다.

④ 요나스는 책임 윤리를 통해 현세대는 미래 세대에 대해 허구적 동시성을 근거로 유대와 공감의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주장한다.

⑤ 요나스는 생명체로서의 존재가 책임의 전제 조건이라고 주장한다.

실전 모의고사 5회

- 주의해야 할 부분: 밑줄, 볼드 표시한 부분만 주의하자. 무난한 문제.
- 제시문: 표는 어느 서양 사상가에 대한 한 학생의 질문 응답지이다. 응답이 모두 옳다고 할 때, ㉠에 들어갈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질문	응답	
		예	아니오
(1)	미래 지향적 책임은 예방적 책임을 요구하는가?	V	
(2)	윤리적 공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의 생존 및 생태계 전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가?	V	
(3)	행위의 결과는 알 수 없으므로 행위자의 의도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어야 하는가?		V
(4)	㉠	V	

- 선지:

- ① 인류가 따라야 할 최고의 의무는 인류의 생존인가?
- ② 인간은 예측 가능한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가?
- ③ 현대 과학 기술의 힘은 미래 세대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는가?
- ④ 현세대의 이익이 되더라도 미래 세대의 존립을 위협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 ⑤ 현세대와 미래 세대는 호혜적 관계를 이루므로 현세대는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가?

- 해설: 요나스의 책임 윤리 이해

- 문제분석 : 질문의 대상이 된 사상가는 요나스이다. 요나스는 현대 과학 기술이 갖고 있는 막강한 힘과 영향력에 대해 기존의 전통 윤리가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이러한 과학 기술의 힘에 의해 영향을 받는 생명과 생태계에 대한 책임을 담는 새로운 윤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요나스의 미래 지향적 책임 윤리는 이미 행해진 것에 대한 보상의 책임을 넘어 일어날 수도 있는 일에 대한 배려와 예방의 책임을 요구한다.

- 정답찾기 : ⑤ 요나스의 책임 윤리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후손들을 대상으로 한다. 미래의 후손들은 현세대의 인간과 호혜적 관계를 이루지 않는다.

- 오답피하기

- ① 요나스는 인류가 따라야 할 최고의 의무는 인류의 생존 이라고 하였다.
- ② 요나스의 책임 윤리는 일어날 수도 있는 일에 대한 예방적 책임을 요구한다.
- ③ 요나스는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간의 행위는 이제 미래 세대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본다.
- ④ 요나스는 인류의 존속이 절대적인 정언 명령이므로 미래 세대의 존립을 위협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2) 하이데거

하이데거의 현대 과학 기술 문명에 대한 이해

현대의 과학 기술에서 드러나는 지배적인 ‘탈은폐’의 방식은 일종의 ‘뉘달’로, 자연에게 에너지를 내놓으라고 강요한다. 그러한 에너지는 퍼내어져 저장될 수 있다. 지구는 이제 한갓 광물의 저장고로서 드러난다. 이때 인간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이로써 사물을 생명이 있는 고유한 어떤 것으로 보던 세계도, 그리고 사물이 자신이 창조된 위상으로 인해 절대자, 최고의 지배자, 그리고 성스러운 자를 지시하던 세계도 사라져 버렸다.

- 하이데거, “강연과 논문” -

▶ 하이데거는 현대 기술 문명의 본질을 ‘뉘달’, 즉 몰아세움으로 이해한다. ‘탈은폐’란 ‘밖으로 끌어내어 앞에 내어놓음’을 의미하는데, 하이데거에 의하면, 이는 현대 과학 기술 문명은 자연을 에너지의 저장고로 규정하고, 자연을 ‘뉘달’해 자연에 저장된 에너지를 무리하게 채굴하려 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하이데거는 이로 인해 오늘날 우리가 자연 세계와 사물의 근원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지만, “위험이 있는 곳에 구원의 힘도 함께 자란다.”라고 하면서 대지 위에서 인간이 시(詩)적으로 거주하는 것, 즉 소박하고 단순한 것에 대한 참다운 깨달음(‘고향 상실의 참다운 극복’)을 제안한다.

자연을 에너지원으로 규정하는 현대 과학 기술은 자연을 계산 가능한 힘들의 연관으로 규정하면서 자연을 ‘뉘달(몰아세움)’하는 것을 본질로 한다. 이로 인해 인간은 사물과 이 세계의 근원적 차원, 즉 사물을 생명이 있는 고유한 어떤 것으로 이해했던 세계를 상실했고, 사물은 자신의 창조된 위상으로 성스러운 자를 지시하던 세계를 상실했다. 이제 인간은 존재 자체의 소리에 귀 기울임으로써 모든 존재자의 고유하면서도 소박함을 기쁨과 경이로 맞이해야 한다.

8강. 환경과 윤리

1) 인간 중심주의

아리스토텔레스

- “식물은 동물의 생존을 위해, 동물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존재한다.”
- 이성을 지닌 인간은 자연을 이용할 수 있다고 봄

아퀴나스

- “야수를 죽이는 것이 죄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 신의 섭리에 의해 동물은 인간이 사용하도록 운명 지어져 있다고 봄

베이컨

- 인간의 지식이 곧 인간의 힘이다. 자연은 오로지 복종함으로써만 복종시킬 수 있다.”
- 자연을 정복해 인간의 물질적 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을 과학의 목적으로 파악함

데카르트

- “동물은 정신을 전혀 갖고 있지 않으며, 그들 속에 있는 기관들의 배치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자연(기계)이다.”
- 인식하는 주체와 인식되는 대상을 구분함으로써 인간이 자연을 이용하고 정복하는 사유를 정당화함

오히려 동물은 정신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며, 각 기관의 배치에 따라서 작동하는데, 이것이 바로 자연이다. 이것은 마치 시계가 톱니바퀴와 태엽만으로 만들어지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뛰어나게 시간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는 것과 같다.

칸트

- “동물에 대한 우리의 의무는 인간성 실현을 위한 간접적인 도덕적 의무에 해당한다.”
- 자율성과 이성적 능력을 지닌 인간만이 도덕적 행위의 주체라고 봄

인간 이외에 의무를 질 능력이 있는 다른 존재자들은 없다. 따라서 인간은 인간에 대한 의무 이외에 다른 존재자들에 대해 의무를 가질 수 없다. 그럼에도 생명이 있든 없든 자연에 대한 파괴적 성향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반한다. 왜냐하면 인간 이외의 다른 존재들에 대한 의무가 그 자체만으로는 도덕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도덕성을 촉진하기 때문이고, 인간의 자신에 대한 의무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오직 인간에 대해서만 의무를 지닌다. 순수하게 이성에 따라 판단해 보면, 인간은 인간에 대한 의무 외에는 어떤 의무도 지지 않는다. 만약에 인간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에 대해 의무를 지닌다면, 그것은 도덕적 성찰의 개념에 대한 혼동으로부터 초래된 것이다. 그러한 다른 존재에 대한 의무는 단지 인간 자산에 대한 의무일 뿐이다.

모든 이성적 존재는 목적 그 자체로서의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행위는 자기 자신을, 그리고 다른 이성적 존재들을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서 간주하는 것이어야 한다.

2) 동물 중심주의

싱어

-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근거해 인간을 우대하고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을 차별하는 태도를 '종(種) 차별주의'라고 비판함
- 공장식 동물 사육과 동물에게 과도한 고통을 가하는 동물 실험에 반대함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진 존재들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 평등의 논리를 인간에게만 적용하고 종들 간의 관계에 적용하지 않는 것은 임의적이다.

고통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은 이해관계를 갖기 위한 선행 조건이다. 즉有情성(有情性, sentience)을 지닌 존재는 최소한 고통을 받지 않을 이해관계를 지닌다.

- 우리는 갯가재나 게가 고통스러운 자극에 반응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들은 신경 조직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실제로 고통을 의식하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입증되었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그렇더라도 최근 자료에 의하면 그들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동물에 대한 윤리적 판단 및 그들의 권리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때 고려해야 할 것 중 하나는 우리가 동물들을 얼마나 귀여워하고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닭이나 돼지고기를 먹을 때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함께 생활하는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이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에 기초해 그들의 고통을 줄여 주어야 하며, 그들에게 가장 나은 삶을 살게 해 주는 것은 공리주의 원칙에도 부합합니다.

인간과 동물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따라서 권리에도 차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동물에게도 기본 권리가 있음을 막을 수는 없다. 그것은 쾌고 감수 능력을 지녔느냐가 기준이 된다.

실전 모의고사 5회 싱어

- 주의해야 할 부분:

싱어의 이익 동등(,평등) 고려의 원칙이란, 그 대상이 ~의 '이익, 이익관심, 쾌락과 고통'이다. 인간과 동물을 동등하게 대우하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동물이 지닌 '이익, 이익 관심, 쾌락과 고통'을 동등(,평등)하게 고려하라는 것이다.

서술어: 평등하게 '대우(treatment)vs고려(consideration)'

주어: '인간과 동물 vs 이익(인간과 동물이 지닌)'

- 제시문: 밑줄 친 '이 원칙'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떤 사상가는 종 차별주의를 비판하고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내세우면서 이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원칙은 초기 태아 상태에서의 동물 종의 구분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초기 태아 상태에서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개의 태아를 죽이는 것과 인간의 태아를 죽이는 것은 동등한 것이 된다. 이 원칙은 또한 쾌고를 느끼지 못하지만 생태계의 존속에 중요한 존재들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생태계 파괴를 허용하게 된다.

- 선지:

- ① 생명의 가치에는 위계가 없으므로 모든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
- ② 개별 존재의 행위가 생명 공동체의 안정성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
- ③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모든 존재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
- ④ 동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성장 발전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⑤ 인간은 장기적 이익을 위해 자연의 모든 존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해설: 싱어의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 이해

- 문제분석 : 밑줄 친 '이 원칙'은 싱어가 제시한 이익 평등고려의 원칙이다.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모든 존재의 이익 관심은 평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제시문의 내용은 이러한 싱어의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이 적용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있다.

- 정답찾기 : ③ 제시문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밑줄 친 '이 원칙'은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개체이어야 도덕적 고려 대상이 됨을 말하고 있다.

- 오답피하기

- ① 생명에의 외경을 주장한 슈바이처의 주장에 해당한다.
- ② 생태 중심주의에 속한 레오폴드의 주장에 해당한다.
- ④ 싱어는 모든 생명체가 아니라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주장한다.
- ⑤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적 입장에 해당한다.

레건

- 일부 동물이 삶의 주체로서 도덕적 권리를 갖는다고 봄
- 의무론의 입장에서 동물을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봄

욕구를 가진 존재는 타자와 구분되는 자신의 복지를 갖고 있다. 이 존재는 희망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삶의 주체이며 수단으로만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

일부 포유동물들처럼 ‘삶의 주체’인 개체들은 그들 스스로가 내재적 가치를 지니며, 존중받을 권리를 지니기 때문에 목적을 위한 도구, 즉 자원의 저장고로서만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도덕적 선악의 판단은 행위 주체의 주관적 정신 상태나 심리 상황과는 무관해야 한다. 우리는 도덕 능력이 없더라도 지각, 믿음, 기억, 쾌고 감수 능력 등을 지닌 삶의 주체인 개체의 권리를 존중하고, 도덕적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

‘삶의 주체’란 개념은 믿음, 욕망, 정서적 삶, 그리고 순간순간의 시간을 넘어서는 심리학적 의미에서의 정체성, 자신의 욕망을 추구할 능력을 의미한다.

실전 모의고사 1회 3번: 환경윤리

- 주의해야 할 부분: 없다. 그냥 쉽고 간단한 내용.

그런데 약간 해설이 이상한게 ㄱ. 선지에 대해서 ‘레건의 주장에 해당’한다고 적혀있는데, 그렇다고 싱어가 이 선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삶의 주체’라는 표현은 레건만 쓰잖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싱어는 『동물의 권리』에서 레건의 ‘삶의 주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와 유사한(범위는 더 넓은) ‘정서적 경험의 주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긍정한다.

따라서 싱어가 ㄱ 선지를 부정한다고 보기 어렵다. 해당 보기는 C라기보다 B에 들어가는 편이 더 적절하다.

아래는 “현자의돌 환경윤리 이론 총정리&문제풀이”(온라인 서점 판매중) 99p 인용

★ 피터 싱어의 동물 해방론 7부 ★
싱어의 정서적 경험의 주체, 가치 있는 삶

• 마티뇰: **복 리건**은 자아 인식,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 그리고 목표를 실현하는 능력이 동물이 대표할 '삶의 동기'라고 했습니다. 동물도 내재적 가치를 타고난다는 거죠.

• 싱어: 동물은 자기 삶을 살고, 복합적인 감정을 체험하고, 이타적인 성향도 보입니다. 의식이 있는(성찰할 줄 아는 의식은 아니더라도) **모든 동물은 고유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삶을 누리고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데 자아를 인식하는 능력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런 동물들 **정서적 경험의 주체**라고 부릅니다. 아까 말씀하신 '삶의 동기'가 이런 것을 의미한다면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내재적인 가치가 필연적으로 종교적 절대주의가 말하는 '신성한 가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동물의 삶 자체에 내재적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것이 동물의 삶에 전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삶을 영위하고는 있어도 그 삶이 매우 비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동물의 삶에는 부정적인 가치가 내재돼 있겠죠. [싱어 『동물의 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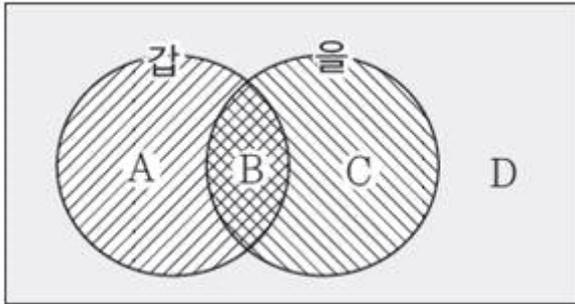
▶ 싱어는 자기의 삶을 살고, 복합적인 감정을 체험하고, 이타적인 성향을 보이고, 의식이 있는 등의 특성을 가진 동물에게는 '고유의 가치', '내재적 가치'가 존재한다고 말한다. 싱어의 말에는 '동물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어야 한다는 의미가 전제되어 있다.

- 제시문

싱어) 한 존재의 고통은 어떤 다른 존재와 대략의 비교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한 그러한 존재들의 비슷한 고통과 동등한 것으로 볼 것을 요구한다.

레건) 인간과 인간이 아닌 삶의 주체는 존중받을 도덕적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권리를 가진 개체들은 결코 마치 다른 것들을 위한 자원인 것처럼 대우받아서 안 된다.

- 선지



<범례>

A : 싱어만의 입장

B : 싱어, 레건의 공통 입장

C : 레건만의 입장

D : 싱어, 레건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입장

<보기>

ㄱ. A : 삶의 주체인 동물은 도덕적으로 존중받아야 할 대상이다.

ㄴ. B : 동물도 인간처럼 고통을 싫어하고 쾌락을 좋아한다.

ㄷ. C : 인간은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

ㄹ. D : 모든 생명체가 도덕적인 존중의 대상이다.

- 해설: 싱어와 레건의 사상적 관점 비교

문제분석 : 갑은 싱어, 을은 레건이다. 싱어는 즐거움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인간 이외의 동물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그는 동물에 대한 공장식 사육 금지, 동물 실험 반대 등을 요구하였다. 레건은 삶의 주체인 포유동물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그에게 있어 삶의 주체는 단순히 살아 있다는 의미를 넘어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이다.

정답찾기:

ㄴ. 싱어와 레건은 모두 동물도 인간처럼 고통을 싫어하고 쾌락을 좋아하는 존재라고 보았다.

ㄷ. 싱어는 꽤고 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만을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보았다. 레건은 삶의 주체로서의 포유동물만을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보았다.

오답피하기:

ㄱ. 레건의 주장에 해당하는 진술이다.

ㄹ. 싱어와 레건의 공통적 진술이다.

실전 모의고사 4회 환경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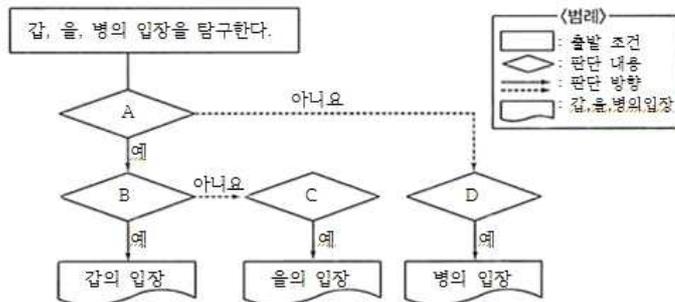
- 보기 ㄹ: 식물이나 자연계의 아름다운 무생물도 간접적 의무의 대상에 포함 가능함.

- 제시문:

싱어 : 고통을 받거나 기쁨을 얻는 능력은 이익 일반을 가지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따라서 만일 한 존재가 고통을 받는다면, 그러한 고통을 고려하지 말아야 할 도덕적 이유가 있을 수 없다.

레건 : 어떤 개체가 다른 존재의 이익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에 대해 논리적으로 독립해서, 자신의 욕구와 목표를 위해 행위 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능력 등을 갖는다면, 그 개체는 삶의 주체이다.

칸트 : 이성은 없지만 생명이 있는 일부 피조물과 관련하여 동물들을 잔학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와 내면에서 더욱더 배치된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타인과의 관계에서 도덕성이 약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보기>

- ㄱ. A : 일부 포유동물은 도덕 행위 능력과 무관하게 도덕적 지위를 갖는가?
- ㄴ. B : 쾌고 감수 능력은 동물의 이익을 고려하기 위한 유일한 조건인가?
- ㄷ. C : 인간이 아닌 삶의 주체도 도덕적 권리를 존중받아야 하는가?
- ㄹ. D : 동물 이외의 존재는 간접적 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 문제분석 : 갑은 동물 중심주의 입장인 싱어, 을은 동물 중심주의 입장인 레건, 병은 인간 중심주의 입장인 칸트이다. 싱어와 레건의 입장은 모두 동물 중심주의에 해당하지만 싱어는 동물의 쾌고 감수 능력을 근거로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강조하는 반면, 레건은 동물이 삶의 주체로서 내재적 가치를 지니므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칸트는 도덕적 관계는 인간 사이에서만 성립하며, 동물과 자연에 대한 의무는 인간성을 위한 간접적 의무일 뿐이라고 보았다.

- 정답찾기 : ㄱ. 싱어와 레건은 긍정, 칸트는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은 인간과 동일한 이익 고려의 대상이라고 보았고, 레건은 삶의 주체로서 도덕적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지각, 기억, 믿음, 자기의식, 의도, 미래에 대한 감각 등의 특성이 요구된다고 보아 몇몇 포유동물이 이러한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칸트는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고 보았다. ㄴ. 싱어만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쾌고 감수 능력을 동물의 이익을 고려하기 위한 유일한 조건으로 보는 것은 싱어에게만 해당하는 입장이다. 레건은 타자의 이익을 고려하는 기준으로 쾌고 감수 능력 이외에 지각, 기억, 믿음, 자기의식, 의도, 미래에 대한 감각 등의 특성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ㄷ. 레건은 인간과 인간이 아닌 삶의 주체 모두 도덕적 권리를 지닌다고 보았다.

- 오답피하기 : ㄹ. 칸트는 동물과 자연 모두 간접적 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3) 생명 중심주의

슈바이처

“생명을 유지하고 고양하는 것은 선이며, 생명을 파괴하고 훼손하는 것은 악이다.”

- 모든 생명은 살고자 하는 의지를 지니고 있으며 그 자체로 신성하다는 ‘생명의 동등성’을 주장함

- 자기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다른 생명을 해쳐야 할 경우가 발생하는데 여기서 ‘생명의 차등성’이 드러나지만, 그럼에도 생명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함

윤리란 생명에 대한 경외(敬畏) 그 이상의 것을 말하지 않는다. 생명을 유지하고 고양하는 것은 선이고, 생명을 파괴하고 훼손하는 것은 악이다.

테일러

테일러의 우선성의 원리

테일러는 인간의 활동이 살아 있는 생명체들에게 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 이러한 갈등을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절차적 규칙들을 우선성의 원리 형식으로 제시한다. 그것은 자기 방어(원리), 비례(균형)의 원리, 최소악의 원리, 분배적 정의의 원리, 그리고 보상적(복원적) 정의의 원리이다. 자기방어의 원리란 도덕적 행위자에게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것으로, 이것은 위험하거나 위협적인 유기체들에 대항해 도덕적 행위자가 그들을 파괴함으로써 자신을 지키는 것을 말한다. 비례(균형)의 원리란 인간의 부차적인 이해관계(명품 소비를 위한 동물 가죽)와 동식물의 기본적인 이해관계(생존)가 충돌할 경우 후자를 우선한다는 원리이다. 최소악의 원리란 인간의 부차적 이해관계이지만 문명사회에서 고유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해 온 것들과 동식물의 기본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열린 자세로 동식물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그 피해를 최소화할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분배적 정의의 원리란 인간의 기본적 이해관계와 동식물의 기본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불가피하게 동식물의 이용을 허용하는 원리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육식보다는 채식을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보상적(복원적) 정의의 원리란 최소악의 원리와 분배적 정의의 원리가 적용될 때 비인간인 유기체들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이에 대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원리이다.

▶ 테일러는 인간과 자연 사이의 갈등을 피하기 위한 우선성의 원리로 ① 자기 방어(원리), ② 비례(균형)의 원리, ③ 최소악의 원리, ④ 분배적 정의의 원리, ⑤ 보상적(복원적) 정의의 원리를 제시한다.

“모든 생명체는 자기 보존과 자체적 좋음[good]을 향해 움직이는 목적 지향적 활동의 단일화된 체계라는 점에서 동등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 모든 생명체는 고유의 선을 지니며, 인간이 자연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와 무관하게 내재적 가치를 가지므로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봄

모든 생명체는 목적론적 활동의 중심이며 도덕적으로 대우받아야 할 존재이다. 인간은 생명체의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생명체의 도덕적 지위는 그것이 살아 있는 유기체로서 삶의 목적론적 중심이라는 사실, 즉 자연적으로 주어진 자신의 목적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는 사실에 있다.

생명체가 목적론적 활동의 중심이 되게끔 하는 것은 자신의 선을 실현하도록 방향 지워진 유기체의 작용이 갖는 일관성과 통일성 때문이다.

인간은 다른 생명체들과 같이 생명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이다. 따라서 상호 의존적 관계의 그물로 엮인 개별 유기체들을 존중해야 한다. 이들은 스스로 목적론적 생명들의 중심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테일러

인간과 생명 공동체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먼저, '자기 방어 원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것은 도덕 행위자가 자신을 파괴하려는 유해하고 위협적인 유기체들에 대항하여 그들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원리이다. 그렇지만 이 원리는 오직 도덕 행위자가 그와 같은 유기체들에게 직접 노출됨으로써 자신들을 합리적으로 보살핀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만으로 제한되며, 또 환경 조건에 의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여 이 때문에 자신들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만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이 원리는 도덕 행위자가 단순히 사적인 개인으로서 지닐 수 있는 이해관계, 또는 사적인 가치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위함으로써 유기체의 파괴를 포함하게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실전 모의고사 3회 11번 환경 윤리

주의해야 할 부분: 선지 ①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식물과 동물의 목적은 결국 인간을 위한 것이라는 수단적 관점에서 바라보았다는 점에서 식물과 동물의 선(善), 목적을 ‘고유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나? 하는 의문은 듭니다. 그렇지만 연계 교재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고유한 목적을 지향’한다는 선지를 옳다고 했으니 그냥 인정하고 갑시다.(수능 전 정오표 확인 필요)

- 제시문:

갑(아리스토텔레스) : 식물은 영양과 성장, 생식의 능력을 지니며, 동물은 이것에 더해 욕구의 능력을 지닌다. 오직 인간만이 이 모든 것들은 물론, 사고의 생명 활동을 지닌다. 자연은 무의미하고 목적이 없는 것은 하지 않는다.

을(테일러) : 어떤 행위가 옳다고 하는 것, 그리고 어떤 성격 특성이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하는 것, 그것은 ‘자연에 대한 존중’의 표현, 즉 궁극적으로 모든 생명이 ‘목적론적 삶의 중심’임을 표명하고 구체화하는 것인가에 달려 있다.

병(레건) :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닌다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지각과 기억, 쾌고의 정서 생활, 심리적 정체성, 미래에 대한 감각을 지닌 존재는 ‘삶의 주체’로서 이와 같은 가치를 지닌다는 의미이다.

- 선지:

- ① O 갑(아리스토텔레스)은 생명이 있는 존재는 자신의 고유한 목적을 지향한다고 본다.
- ② X 을(테일러)은 모든 생명 유기체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은 아니라고 본다.
- ③ X 병(레건)은 모든 생명 유기체는 삶의 주체로서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 ④ X 갑(아리스토텔레스)은 을(테일러)과 달리 인간이 다른 생명 종(種)의 구성원들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본다.
- ⑤ X 병(레건)은 을(테일러)과 달리 생명 유기체가 지닌 쾌고 감수 능력만을 도덕적 권리의 기준으로 본다.

- 해설: 아리스토텔레스, 테일러, 레건의 환경 윤리 비교

문제분석 : 갑은 목적론적 관점을 주장하는 아리스토텔레스, 을은 생명체가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고 주장하는 테일러, 그리고 병은 ‘삶의 주체’인 존재의 도덕적 지위를 주장하는 레건의 입장이다.

정답찾기 : ① 갑은 식물의 선(善)은 영양의 흡수나 성장의 기능을 다하는 것이며, 동물의 선은 여기에 더해 욕구를 실현하는 것이며, 인간의 선은 이러한 모든 목적들은 물론, 숙고하는 삶까지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오답피하기 : ② 을은 모든 생명체가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고 주장하며, 인간은 이러한 생명체를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③ 병은 ‘삶의 주체’인 일부 포유동물들이 그 자체로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한다.

④ 갑은 인간은 식물이나 동물 같은 다른 생명 종(種)의 구성원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주장한다.

⑤ 병은 일부 동물의 쾌고 감수 능력에 의한 정서적 삶을 도덕적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 중 하나로 본다.

4) 생태 중심주의

레오폴드

“어떤 것이 생명 공동체의 온전성, 안정성, 아름다움의 보전에 이바지한다면 그것은 옳고, 그렇지 않다면 그르다.”라는 대지 윤리를 주장함

- 인간은 공동체의 정복자가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부분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의 한 구성원임을 주장함

- 대지 윤리는 공동체의 범위를 식물, 동물, 토양, 물을 포함하는 대지로 확장시켜야 함을 주장함

- 인간과 자연을 모두 포괄하는 유기체적 생태 공동체 안에서 전체 공동체의 건강한 유지를 위해 개체인 인간에게 도덕적 책임과 의무가 부과된다고 봄

모든 윤리의 공통된 전제는 각 개체는 상호 의존적인 부분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라는 것이다. 땅(대지)의 윤리는 이 공동체의 범위에 땅을 포함하도록 확장하는 것이다.

새로운 윤리는 ‘생명 피라미드’에서 인류의 역할을 정복자에서 평범한 구성원이자 시민으로 변화시킬 것을 요청한다. 새로운 윤리는 전체론에 기초해 동료 구성원에 대한 존중, 공동체 자체에 대한 존중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땅(대지)의 윤리’에서는 어떤 것이 생명 공동체의 온전함과 안정성, 그리고 아름다움의 보전에 기여하는 경향이 있으면 옳고, 그렇지 않으면 그르다.

실전 모의고사 2회 환경 윤리

- 제시문

갑 (레건) : 도덕적 능력자이건 도덕적 무능력자이건 간에 삶의 주체는 존중받을 도덕적 권리를 갖는다. 이런 권리를 가진 개체들은 다른 것을 위한 자원으로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

을 (테일러) : 생명체는 내적 기능과 외적 활동들이 모두 목적 지향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지속시키려는 경향을 갖는다는 점에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병 (레오폴드) : 어떤 것이 생명 공동체의 온전함, 안정성, 아름다움을 보전하는 경향이 있다면 옳다. 그렇지 않은 경향이 있다면 그르다.

- 선지

ㄱ. A(갑을병 공통O) : 지각과 의식을 지닌 존재는 도덕적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는가?

ㄴ. B(갑O, 을X, 병X) : 일부 생명체만이 도덕적 권리를 지니는가?

ㄷ. C(을O, 병X) : 직접적인 도덕적 고려 대상을 대지를 포함한 모든 존재로 확대해야 하는가?

ㄹ. C(을O, 병X) : 도덕적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개체적인 것보다 집합적인 관점을 중시해야 하는가?

- 해설: 레건, 테일러, 레오폴드의 관점 이해

- 문제분석 : 갑은 인간뿐만 아니라 일부 동물도 삶의 주체로서 도덕적 권리를 갖는다고 보는 레건이다.

을은 각각의 생명체가 목적론적 삶의 중심임을 강조하는 테일러이다. 병은 대지 윤리를 주장하는 레오폴드이다.

갑, 을, 병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각각 다르게 설정하고 있는데, 갑은 일부 동물을, 을은 모든 생명체를, 병은 생태계 전체를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파악한다.

- 정답찾기

ㄱ. 갑, 을, 병 모두 '예'라고 대답할 질문이다.

레건은 지각과 의식을 지닌 일부 동물을, 테일러는 지각과 의식을 지닌 동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를, 레오폴드는 집합체로서의 생명 공동체를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파악한다.

ㄴ. 갑은 '예', 병은 '아니요'라고 대답할 질문이다. 레건은 의무론적 관점에서 쾌고 감수 능력, 기억, 지각, 자신의 미래에 대한 의식 등을 지닌 생명체가 도덕적 권리를 갖는다고 본다.

하지만 레오폴드는 일부 생명체만이 도덕적 권리를 갖는다고 보지 않는다.

- 오답피하기

ㄷ. 을은 '아니요', 병은 '예'라고 대답할 질문이다. 테일러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인 생명체만을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보지만,

레오폴드는 대지를 포함한 모든 존재를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본다.

ㄹ. 을은 '아니요', 병은 '예'라고 대답할 질문이다.

실전 모의고사 5회 환경 윤리

- 주의해야 할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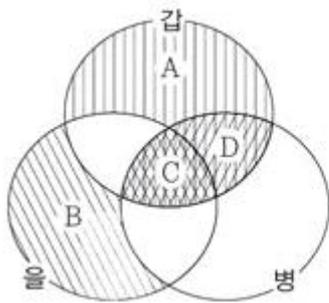
- 1) 벤다이어그램 그림이 혼동되는 학생은 <범례>를 보고 풀면 된다.
- 2) 칸트의 제시문과 선지, 해설에 체크해둔 부분을 확인하자. 칸트도 자연을 높이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 제시문:

갑(칸트) : 인간은 자연을 함부로 해치지 말아야 할 간접적 의무를 지닌다. 미(美)가 이해 관심을 떠나서 자연까지도 사랑하도록 한다면, 숭고(崇高)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감각적 관심에 거스를지라도 자연을 높이 존중하게 한다.

을(테일러) : 살아 있는 모든 존재는 동등한 내재적 존엄성을 갖는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유기체에 비하여 우월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연에 대한 존중의 태도를 취하게 될 것이다.

병(레오폴드) : 우리는 도덕 공동체의 범위를 대지로 확대해야 한다. 인간은 대지의 지배자가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이며, 다른 자연의 존재들을 존중해야 한다.



<범례>	
A :	갑만의 입장
B :	을만의 입장
C :	갑, 을, 병의 공통 입장
D :	갑과 병만의 공통 입장

- 선지:

- ㄱ. A : 자연은 인간과 관계없이 고유한 가치를 지닌다.
- ㄴ. B : 인간은 생명체에 해악을 끼쳤다면 보상해야만 한다.
- ㄷ. C : 인간은 자연을 존중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 ㄹ. D : 생태계에 간섭하여 그 안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해설 : 다양한 환경 윤리의 관점 이해

- 문제분석 : 갑은 인간 중심주의로 분류할 수 있는 칸트, 을은 생명 중심주의를 주장한 테일러, 병은 레오폴드로 생태 중심주의의 입장을 취한다.

- 정답찾기

ㄴ. 을의 입장에만 해당한다. 테일러는 인간이 다른 생명체에 해를 끼쳤을 경우 마땅히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ㄷ. 칸트는 숭고가 자연을 존중하도록 해 준다고 하고 있고, 테일러는 자연에 대한 존중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레오폴드는 생태계로서의 자연이 도덕적으로 존중받아야 함을 주장한다.

- 오답피하기 : ㄱ. 레오폴드가 지지할 입장에 해당한다.

ㄹ. 테일러는 생명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생태계의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을 주장하고, 레오폴드는 생명 공동체의 온전함과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테일러와 레오폴드의 공통 입장에 해당한다.

심층 생태학 (대표자: 네스)

“모든 유기체는 생명의 연결망 속에 본래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 하나의 존재는 개체적 존재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며, 다른 존재와의 관계성 속에서 그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고 봄
- 환경 위기를 극복하려면 환경 오염 예방이나 경제 개발의 속도 조절과 같은 피상적 방법이 아니라 세계관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봄
- 인간은 모든 자연적 존재들과 상호 평등한 관계 속에서 공생할 때 큰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고 봄

심층 생태학 (대표자: 네스)

심층 생태주의의 근본 강령

네스와 세션스가 발전시킨 심층 생태주의의 근본 강령은 다음의 원리들로 구성된다.

1. 인간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번성은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생명체의 가치는 협의의 인간의 목적에서 나오는 유용성과 무관하다.
2. 생명의 풍부함과 다양성은 그 자체로서 가치 있고, 인간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삶이 번성하는 데 기여한다.
3. 인간은 없어서는 안 될 본질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명의 풍부함과 다양성을 축소시킬 권리가 없다.
4. 더 나은 삶의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정치적 변혁이 필요하다.
5. 이념의 변화는 생활 수준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인식하는 것으로 ‘큰(big)’ 것과 ‘위대한(great)’ 것의 차이에 대한 깊은 자각이 있어야 한다.

- 송명규, “현대 생태 사상의 이해” -

심층 생태주의자들은 현재의 심각한 환경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계관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심층 생태주의는 전체론적이고, 관계 중심적이며, ‘전체장(total-field)’ 중심적인 입장을 표명한다. 심층 생태주의의 ‘큰 자아’란 전체론적인 자아이며, ‘생명 중심적 평등’이란 모든 유기체와 생태권에 존재하는 모든 실재가 상호 연관된 부분들이라는 점에서 동등하다는 의미이다.

인간은 반드시 필요한 것만을 충족해야 하며, 생명의 풍요와 다양성을 해칠 어떤 권리도 갖지 않는다. 더 나은 삶의 조건을 위해서는 정치적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 기술, 이념에서의 급진적인 변화가 중요하다. 우리는 ‘거대함’ 대신 ‘위대함’을 깨달아야 하며, 자기 중심적인 ‘작은 자아’가 아니라 자연과 하나가 되는 ‘큰 자아’를 지향해야 한다.

- 한층 높은 자아실현은 다른 모든 것들과 자기 자신에 대해 보다 넓고, 보다 심층적인 동일시를 하면 할수록 누구에게서나 실현될 수 있다. 또 한층 높은 수준의 자아실현은 다른 모든 것들과의 상호 의존이 증가하면 할수록 누구에게서나 실현될 수 있다. 누구에게나 완전한 자아실현은 다른 모든 것들의 자아실현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자아실현(Self-realization)’을 우리가 따라야 할 규범적 원리로 삼아야 한다.

심층 생태학 (대표자: 네스)

- 생태 철학의 목적은 생태학적 지혜에 있다. 생태학적 지혜란 생태학적 조화와 균형에 관한 철학을 의미하며, 어떤 것에 관한 지혜로서 철학은 규범적이다. 이것은 우리 우주에서 일어나는 사태들에 대한 기준, 규칙, 근본 원리, 우선적인 가치에 대한 공표와 가정 등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생태학적 지혜는 오염, 자원, 인구 등과 같은 '사실들'에 대한 설명은 물론, 한층 중요한 가치들에서의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 주게 될 것이다.

10강. 사회 윤리와 사회 정의

1) 니부어의 사회 윤리

니부어의 사회 윤리적 관점 :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 현대 사회의 복잡한 윤리 문제는 개인의 양심과 덕목의 실천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움
- 개인적으로 도덕적인 사람도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비도덕적으로 행동하기 쉬움
- 개인의 도덕적 행위는 집단의 도덕성을 결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의롭고 도덕적인 사회 제도나 구조가 개인의 도덕적 삶을 이끌어 낼 수 있음
- 개인의 도덕성 함양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와 제도의 도덕성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함

니부어의 사회 윤리

올바른 정치적 도덕성이라면 도덕가들과 정치적 현실주의자들의 통찰<< 모두 정당하게 다루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인간 사회가 사회적 협력의 범위를 아무리 확대하더라도, 사회적 분쟁은 불가피하다는 너무나도 엄연한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올바른 정치적 도덕성은 인간 사회에서 강제력을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최소화함으로써, 인간 사회에 합리적, 도덕적 요소들에 가장 잘 부합될 수 있는 유형의 강제력을 사용하도록 권고함으로써, 그리고 강제력이 사용되는 목적과 목표의 차이를 밝혀 줌으로써 쓸데없는 갈등의 악순환에 빠져 있는 사회를 구원하고자 할 것이다. 아마도 합리적인 사회라면 강제력과 갈등의 제거보다는 강제력이 사용되는 목적의 정당성 여부에 더 큰 강조점을 둘 것이다. 강제력의 사용이 어느 누가 보아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사회적 목적에 기여한다면, 그 사회는 강제력을 정당화할 것이다.

- 니부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

니부어는 이성과 양심의 발전을 강조하는 도덕가와 강제력의 사용을 보다 강조하는 정치적 현실주의자의 입장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정의로운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강제력의 사용이 불가피하지만, 이 강제력은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덕적인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 집단은 개인보다 비도덕적이다. 그 이유는 개인들의 이기심이 하나의 공통된 충동으로 나타날 때 이를 억제할 강력한 사회적 힘을 만드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치적 강제력을 바탕으로 힘의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집단 이기주의로 인한 부정을 극복할 수 있다.

실전 모의고사 1회 5번: 니부어의 사회 정의 윤리

- 주의해야 할 부분: 없다. 기출에서 자주 본 제시문과 선지들이다.

선지 ㄷ.이 낫설다면, 아직 니부어의 사상을 잘 모르는 것이니 공부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ㄹ.이 틀린 선지라는 점을 체크하자.

- 제시문

니부어) 개인으로서 사람들은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봉사해야 할 것과 서로 간의 정의를 확립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

그런데 인종적,경제적,국가적 집단으로서의 개인들은 집단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 그들의 힘이 명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한다.

사회는 여러 면에서 어쩔 수 없이 이기심, 반항, 강제력, 원한등과 같이 도덕성이 높은 사람들로부터

전혀 도덕적 승인을 얻어 낼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게 될지라도 종국적으로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

- 선지

ㄱ.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물리적인 힘이 동원될 수 있다.

ㄴ. 개인의 도덕성은 사회 집단의 도덕성보다 현저히 떨어진다.

ㄷ. 개인의 도덕적 자질 함양은 집단의 도덕성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준다.

ㄹ. 개인의 도덕성이 추구하는 목표와 집단의 도덕성이 추구하는 목표는 항상 일치해야 한다.

- 해설: 니부어의 관점 이해

문제분석 :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의 성격을 구분한 니부어는 사회의 도덕성이 개인의 도덕성보다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개인의 선한 의지만으로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어려우며 사회 제도와 정책의 개선을 통한 사회 윤리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답찾기:

ㄱ. 니부어는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정책 등의 제도를 개선하는 것과 물리적인 강제력이 동원될 수 있다고 보았다.

ㄷ. 니부어는 윤리 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의 도덕적 자질 함양이 집단의 도덕성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오답피하기:

ㄴ. 니부어는 사회 집단의 도덕성이 개인의 도덕성보다 떨어진다고 보았다.

ㄹ. 니부어는 개인의 도덕적 이상은 이타성에서, 사회의 도덕적 이상은 정의 실현에서 찾았다.

그에 의하면 개인의 도덕적 이상과 사회적 도덕적 이상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실전 모의고사 3회 3번 니부어

- 주의해야 할 부분: 그냥 기출에서 나온 내용 반복입니다. 제시문이나 선지나 특별히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니부어 선지로 '도덕적 통제를 받는'이라는 수식어 없이 '사회적 강제력'만 나오면 틀린 것 아니냐고 물어보는데 수능과 평가원 기출 선지를 보시면 니부어 선지로 수식어 없이 '사회적 강제력'이 필요하다는 선지가 옳은 선지로 빈출되고 있습니다.

- 제시문:

사회 정의 실현에 이성의 계발이 어느 정도 기여한다는 점은 맞다. 하지만 곧바로 이성의 한계로 말미암아 순수한 도덕적 행위, 특히 복잡하고 집단적인 관계들 속에서의 이성적 행위는 실현 불가능한 목표가 되고 만다. 집단들은 이성을 공동의 비합리적 충동 아래에 놓이게 하기 때문에 이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선지:

- ① X 사회 정의는 구성원에 대한 이성과 선의지의 계발만으로도 실현되는가?
- ② X 사회 정의는 사회악을 견제하는 종교적 신념과 양심을 통해서만 실현되는가?
- ③ X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힘의 견제와 균형을 강조하는 제도만이 중요한가?
- ④ O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도덕적 통제를 받는 정치적·물리적 강제력이 중요한가?
- ⑤ X 사회 정의는 집단의 도덕성을 결정하는 개인의 도덕성 고양을 통해서 실현되는가?

- 해설: 니부어의 사상 이해

문제분석 : 갑은 개인의 이성과 양심(개인 윤리적 관점)의 계발만으로 사회적 도덕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는 도덕가이다. 을은 사회적 도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이성(합리성)이나 도덕적 선의지의 고양도 필요하지만, 사회 구조와 제도의 개선이 중요하다는 니부어이다.

④ 니부어는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해 도덕적 통제를 받는 정치적·물리적 강제력을 중시한다.

오답피하기 : ①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구성원 개인들의 이성과 선의지의 계발에만 의존하는 것은 갑의 입장이다.

② 니부어는 종교적 신념이나 도덕적 양심에만 기대어 사회적 도덕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의 한계를 비판한다.

③ 니부어는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힘의 견제와 균형을 강조하는 제도만이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다.

⑤ 니부어는 개인의 도덕성이 사회 집단의 도덕성을 결정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실전 모의고사 4회 니부어

- 주의해야 할 부분: ㉔가 틀린 선지라는 것을 체크하자.

- 제시문:

1. 사회자: 사회 집단이 개인보다 도덕적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2. 니부어: 개인들의 이기적 충동은 하나의 공통된 충동으로 결합해 나타날 때 더 강하게 표출되기 때문입니다.

3. 사회자: 그러면 끝없는 이기심을 보이는 집단 간 관계 속에서 사회 정의를 어떻게 실현해야 할까요?

4.니부어: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㉑

- 선지:

㉑ 특정 집단이 정치권력을 독점하도록 해야 합니다.

㉒ 집단 구성원 간의 사회적 유대감을 증대시켜야 합니다.

㉓ 제도의 개선보다는 개개인의 선의지를 고양해야 합니다.

㉔ 도덕성이 바탕이 된 합리적 사회 강제력을 시행해야 합니다.

㉕ 도덕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이 승인하는 강제력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문제분석: 가상 대담 속의 인터뷰 대상자는 니부어이다. 니부어는 개인이 아무리 도덕적인 노력을 기울여도 사회 자체가 비도덕적인 경우에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일정한 정치력이나 외적 강제력의 동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정답찾기: ㉔ 니부어는 사회 부정의는 정치적 도덕성이 바탕이 된 제도나 정책을 통한 구조적인 방법으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오답피하기:

㉑ 니부어는 이기주의적이기 쉬운 인간의 성향과 집단 간힘의 불균등이 사회에서 부정의가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고 보았다.

㉒ 니부어는 모든 사회 집단은 충동을 견제하고 극복할 만한 이성이 적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릴 능력도 적으므로 끝없는 이기심을 보인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집단 규모의 확대를 통해 집단 내 유대감을 증대시키는 방식으로는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고 보았다.

㉓ 니부어는 선의지의 고양만으로는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고 보았다.

㉕ 니부어는 어쩔 수 없이 도덕성이 높은 사람들로부터 전혀 도덕적 승인을 얻어 낼 수 없는 방법(이기심, 반항, 강제력, 원한 등)을 사용하게 될지라도 종국적으로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2) 분배 정의 윤리

아리스토텔레스

- 국가는 자연의 피조물이며, 또한 인간은 본성적으로 사회적인 동물임이 명백하다.
- 모든 공동체들 가운데 가장 상위의 것이며 또한 나머지 공동체들을 모두 포함하는 국가 또는 정치적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보다 더 나은 선 또는 최상위의 선을 목표로 할 것이다.
- 정치학 분야에서 선은 정의이며, 정의는 공익, 즉 시민의 행복 증진에 있다.

법을 잘 따르는 것이 일반적 정의이고 분배와 거래에 있어 공정함이 부분적 정의이다. …(중략)… 부분적 정의의 하나의 유형과 그것에 따르는 옳은 것의 한 유형은 정치적 체제를 함께 하는 공동체의 구성원들 간에 나눌 수 있는 명예나 부(富), 혹은 다른 어떤 것들의 분배에서 찾아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해서 동등하지 않은 몫을 혹은 동등한 몫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략)… 나머지 한 부류는 바로잡는 것이다. 이러한 올바름은 앞에서 말한 것과는 다른 부류에 속한다. 그런데 교섭에 있어서의 올바름도 어떤 종류의 동등함이고 또 올바르지 않음은 어떤 종류의 동등하지 않음이지만, 그 올바름은 다른 부류인 그 유형의 비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술적 비례에 따른다.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

- ①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려면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규제하는 사회 제도가 공정한 조건에서 합의된 정의의 원칙에 의해 규제되어야 함
- ② 원초적 입장 : 상호 무관심한 합리적 개인들이 무지의 베일하에서 합의를 통해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는 가상 상황
- ③ 원초적 입장에 놓인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불리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정의의 원칙에 합의함
- ④ 정의의 원칙
 - 제 1원칙 : 평등한 자유의 원칙 - 모든 사람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누려야 함
 - 제 2원칙 :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 -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직위와 직책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야 함
 - 차등의 원칙 -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편성될 때 정당화됨
- ⑤ 자유 경쟁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분배가 이루어지되,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함
- ⑥ 누구나 최소한의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함

롤스의 재산 소유 민주주의

내가 수정하고 싶은 또 하나는 복지 국가라는 관념과 재산 소유 민주주의라는 관념을 더욱 예리하게 구분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관념은 서로 매우 다르다. 그러나 양자 모두 생산적 자산들에 대한 사유 재산권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양자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잘못 생각하게 된다. 한 가지 주요한 차이점은, 재산 소유 민주주의의 배경적 제도들은 경쟁 시장 체제를 구비하고 있으면서 부 및 자본 소유의 분산을 시도하며 따라서 사회의 소수가 경제 및 간접적으로는 정치적 삶 그 자체를 통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각 시기의 마지막 순간에 적게 가진 사람들에게 소득을 재분배함으로써가 아니라, 말하자면 각 시기가 시작하는 순간 생산적 자산과 인간 자본(교육된 능력과 훈련된 기예)의 광범위한 소유를 보장함으로써 부의 집중을 피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와 공정한 기회균등을 배경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이 관념은 단순히 우연적인 사고나 불행으로 손실을 입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시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 자신들의 일을 꾸려 나갈 수 있는 위치에 서게 하는 것이며, 적절히 평등한 조건하에서 상호 존중에 기초하여 사회적 협력을 지원하게 하는 것이다.

- 롤스, “정의론” -

롤스에 따르면, 복지 국가는 각 시기의 마지막 순간에 재분배를 통해 사람들이 일정 생활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우연적인 사고나 불행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을 한다. 롤스에 따르면, 이러한 복지 국가는 경제적 불평등과 이로 인한 정치적 영향력의 격차를 막지 못해 정의의 원칙을 충분히 실현할 수 없다. 그는 복지 국가의 대안으로 부의 집중을 막고 이를 바탕으로 평등한 기본적 자유와 공정한 기회균등을 실현할 수 있는 재산 소유 민주주의를 제안한다.

정의의 원칙은 권리 할당과 이익 배분의 근거 원리이다. 개인이 어떤 여건에서 태어나는 것은 정의롭지도 부정의하지도 않은 임의적 사실이다. 이 사실을 다루는 제도가 정의로운지의 여부는 합리적 개인들이 유불리를 배제한 채 도출한 원칙에 의거하였는지에 달려 있다.

원초적 입장에서 사람들은 정의의 두 원칙을 채택하게 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기본적 자유가 평등하게 분배되고, 재화가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이 되도록 분배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공동의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자연적·사회적 여건의 우연성을 이용하기로 약속한다.

분배적 정의의 배경적 제도 중 분배처의 임무는 과세와 재산권의 조정을 통해 분배의 몫에 있어서의 정의를 유지하는 일이다. 분배처는 먼저 부의 분배를 바로잡고 정치적 자유의 공정한 가치와 공정한 기회균등 등을 해치는 힘의 집중을 막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여하고 유산권에 제한을 가한다. 그리고 공공선을 위한 사회적 자원의 제공과 차등의 원칙을 만족시키기 위한 양도액의 지불을 위해 조세 체제를 수립한다.

가능한 한 생산적 자산과 인적 자산을 널리 분산하여 적정한 사회적·경제적 평등을 실현하며, 이를 바탕으로 모든 시민들의 정치 참여의 실질적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이는 최소 수혜자가 공동체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공동체 구성원들이 호혜성의 원칙에 따라 협력하도록 하게 한다.

원초적 입장에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상이한 두 원칙을 채택할 것이다. 첫 번째 원칙은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의 할당에 있어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며, 두 번째 원칙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예를 들면 재산과 권력의 불평등을 허용하되 그것이 모든 사람, 그중에서도 특히 최소 수혜자에게 그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이득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정당한 것임을 내세우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의 원칙은 사회 협동 체제의 안정적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

실전 모의고사 1회 9번: 분배 정의

- 주의해야 할 부분: 선지 ㄱ.가 롤스와 노직 공통이라는 점을 체크해두자. 그 외는 무난한 내용.

- 제시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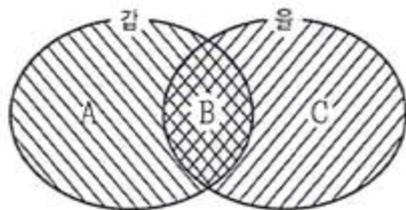
노직) 자유 세계에서 새로운 소유물은 자발적 교환으로부터 발생한다.

한 사람의 소유물은 취득과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 또는 불의의 교정의 원리에 의해 그가 그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았으면 정당하다.

롤스)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우선, 공정한 기회균등의 조건하에 모두에게 열려 있는 직책과 직위에 결부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그 불평등을 보상할만한 이득을 가져와야 한다.

- 선지



<범례>

A : 노직만의 입장

B : 노직, 롤스의 공통 입장

C : 롤스만의 입장

<보기>

ㄱ. A : 개인은 자신이 정당하게 취득한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지닌다.

ㄴ. B :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다.

ㄷ. B : 평등한 기본적 자유는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ㄹ. C :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가 정당화될 수 있다.

- 해설: 노직과 롤스의 관점이해

문제분석 : 갑은 노직이고, 을은 롤스이다. 노직은 개인의 소유권에 대한 절대적 권리를 강조하며, 정의의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취득한 소유물에 대해 개인은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고 본다. 롤스는 차등의 원칙에 따라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주는 정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본다.

정답찾기 :

ㄴ. 노직과 롤스는 능력과 노력에 따른 경제적 차이가 존재 할 수 있다고 본다.

ㄷ. 노직과 롤스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본다.

오답피하기 :

ㄱ. 노직과 롤스의 공통점이다.

ㄹ. 노직과 롤스는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노직

노직의 자유 지상주의

- ① 취득과 이전(양도)의 과정이 정당하면 그 과정을 통해 얻은 소유물에 대해서는 절대적 소유 권리를 가짐
- ② 개인의 자유 강조
- ③ 국가에 의한 재분배 반대(단, 교정을 위한 재분배는 제외)

정의의 원칙은 개인이 무엇을 소유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을 유일한 근거로 한다. 정당한 자격을 가진 이들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교환하는 절차의 규칙을 위반하지만 않는다면, 어떤 사람은 부유하고 어떤 사람이 가난하다는 사실이 불행일 수는 있으나 불공정하지는 않다.

확대 국가를 옹호하는 분배적 정의론은 분배를 위한 재화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개인이 정당한 소유 자격을 갖는 소유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 개인들의 소유물에 대한 정당한 소유 자격이 사회 정의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소유물에서의 정의의 이론의 일반적 개요를 말하자면, 한 사람의 소유물은, 취득과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 또는 불의의 교정의 원리에 의해 그가 그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았으면 정당한 것이다. 개인들은 소유 자격이 있는 소유물에 대해서 불가침의 권리를 갖는다.

각 개인이 갖는 바는 그가 다른 사람과 교환하여 또는 선물로서 그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은 바이다. 자유세계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다른 물자를 손에 쥐고 있으며 새로운 소유물은 자발적 교환과 행위로 부터 발생한다. 정의의 역사적 원리에 따르면 과거의 상황이나 사람들의 과거 행위는 사물에 대한 차별적인 소유 권리나 응분의 자격을 창조한다.

공리주의

어떤 행위가 그 행위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줄여 주고 행복을 증대시켜 준다면 그 행위는 도덕적인 행위이다. 재화 분배의 결과가 사회 전체의 효용을 최대화시켰을 때 그 분배는 정의롭다고 할 수 있다.

실전 모의고사 2회 분배 정의

- 제시문

노직 : 분배적 정의의 이론적 과제가 ‘그의 ~에 따라서 각자에게’라는 구절의 빈 칸을 메꾸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정형이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무엇을 자유롭게 만들거나 이 과정에서 사용된 자원들을 구입했거나 이를 얻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누구나 이에 대한 권리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 특수한 정의의 종류로서 분배에 있어서의 옳음은 어떤 의미에서의 가치에 따라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한다.

즉 분배는 각자의 가치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물론 그 가치가 어떤 것이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생각을 같이하는 것은 아니다.

- 선지

(발문: 노직, 아리스토텔레스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수적 정의로서 분배 정의는 산술적 비례에 따라야 하는가?
- ② 재화의 취득 과정에 부정의가 있었다면 이를 교정해야 하는가?
- ③ 재화의 분배가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정형적 원리에 따라야 하는가?
- ④ 국가는 재분배를 통해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의 처지를 개선해야 하는가?
- ⑤ 소유물에 대한 정당한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모든 우연성이 배제되어야 하는가?

- 해설: 노직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 이해

- 문제분석: 갑은 노직이고, 을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노직은 분배에 있어 일정한 틀을 지니는 정형적인(patterned) 분배 원칙을 거부하고 비정형적인 분배 원칙을 강조하는 소유 권리론(entitlement theory)에 입각한 분배를 주장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각자의 가치에 따라’ 분배할 것을 강조하였는데, 각자의 가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 보았다.

- 정답찾기 : ② 노직과 아리스토텔레스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노직과 아리스토텔레스 모두 재화의 취득에 있어 부정의가 있다면 이를 교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 오답피하기

- ① 아리스토텔레스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배 정의가 특수적 정의의 한 종류이며 기하학적 비례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 ③ 노직이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노직은 재화의 분배가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비정형적 원리에 따라야 한다고 보았다.
- ④ 노직이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노직은 국가가 재분배를 통해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의 처지를 개선한다면 개인의 소유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보았다.
- ⑤ 노직이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노직은 모든 우연성의 배제를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가 정당화되기 위한 조건으로 주장하지 않았다.

실전 모의고사 3회 분배 정의

- 주의해야 할 부분:

최근 분배 정의에서는 벤담(공리주의)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가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벤담의 제시문과 견해도 간단히 알아보기는 합시다.

ㄴ 선지에 대해서 롤스는 반대한다.

- 제시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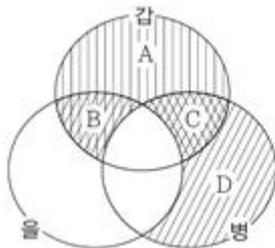
갑(롤스) : 원초적 입장에서 개인은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의 할당에 있어 평등을 요구하며,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허용하지만 그것이 최소 수혜자의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이득을 가져오는 경우로 제한된다.

을(벤담 공리주의) : 유용성이란 어떤 대상이 이해관계 당사자에게 이익, 쾌락, 좋음, 행복을 산출하거나 해악, 고통, 악, 불행, 막는 경향을 지닌 속성을 말한다. 그것이 공동체 전체라면, 공동체 전체의 행복을 말한다.

병(노직) : 누가 소유물을 받아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이론은 주는 행위를 완전히 무시하게 된다. 즉 받는 사람 중심의 이론은 한 사람이 소유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권리를 완전히 무시해 버린다.

- 선지:

(나)



<범례>	
A :	갑만의 입장
B :	갑과 을만의 공통 입장
C :	갑과 병만의 공통 입장
D :	병만의 입장

<보기>

- ㄱ. A :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의 처지를 개선하는 경우에 한해 정당화된다.
- ㄴ. B : 질서 정연한 사회에서 당사자들은 서로에 대해 무관심한 합리적 개인이다.
- ㄷ. C : 천부적 재능의 우연한 분포를 사회적 자산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 ㄹ. D : 국가의 역할은 계약의 집행 및 강압, 절도, 사기로부터의 보호로 한정된다.

- 해설: 롤스, 벤담, 노직의 정의관 비교

문제분석 : 갑은 평등한 자유와 차등의 원칙을 주장한 롤스, 을은 유용성의 원리를 강조한 벤담, 병은 소유권을 지닌 개인의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선택권을 강조한 노직이다.

정답찾기 : ㄱ. 갑의 롤스는 원초적 입장의 무지의 베일에서 합의된 정의의 원칙에 따라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의 처지를 개선하는 한에서 정당화된다고 주장한다.

ㄹ. 노직의 최선의 국가로서 '최소 국가'는 국가의 기능을 강압, 절도, 사기로부터의 보호 및 계약의 집행 등으로 협소하게 규정한다.

오답피하기 : ㄴ. 롤스는 원초적 입장의 상호 무관심한 당사자들이라는 특성이 질서 정연한 사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을 거부한다.

ㄷ. 롤스는 천부적 재능의 우연한 분포를 사회적 자산으로 간주할 것을 주장한다.

실전 모의고사 4회 분배 정의

- 주의해야 할 부분: ㄱ랑 ㄹ만 다시 체크하고 가자.

- 제시문:

갑(노직) : 정의는 각자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소유 권리를 갖는 것이다. 한 사람의 소유물은 취득, 이전, 교정의 원리에 의해 그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았으면 정당하게 된다.

을(롤스) : 정의의 원칙들은 평등한 최초의 입장에서 합의할 대상이다. 바르고 공정한 절차가 있어 그 절차만 제대로 따르면 내용에 상관없이 그 결과도 마찬가지로 바르고 공정하게 된다.

- 선지:

ㄱ. 갑은 개인의 소유 권리를 절대적 존중의 대상으로 본다.

ㄴ. 을은 정의의 원칙을 원초적 입장에서의 합의 대상으로 본다.

ㄷ. 갑은 을과 달리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ㄹ. 을은 갑과 달리 최소 수혜자의 이익 극대화가 정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 문제분석: 갑은 노직, 을은 롤스이다. 노직은 자유로운 경제 활동의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개인은 그 소유물에 대한 절대적 권리를 가진다고 본다. 롤스는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된 기준이 없지만 공정하고 바른 절차를 제대로 따른다면 그 이후의 결과 내용과는 무관하게 그 결과는 공정하다고 본다.

- 정답찾기:

ㄱ. 노직은 개인의 소유 권리를 절대적 존중의 대상으로 본다.

ㄴ. 롤스에 의하면 정의의 원칙은 원초적 입장에서 합리적인 개인들에 의해 도출되는 합의의 대상이다.

ㄷ. 롤스는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되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의 허용은 최소 수혜자에게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정당하다고 본 반면, 노직은 사회적 약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의 허용은 개인의 소유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정당하지 않다고 본다.

- 오답피하기: ㄷ. 노직과 롤스 모두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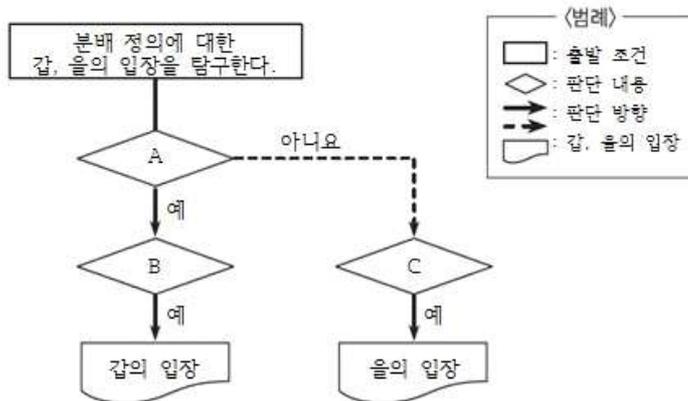
실전 모의고사 5회 분배 정의

- 주의해야 할 부분: 볼드, 밑줄 부분 주의할 것.

- 제시문:

갑 : **사회는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이다.** 이러한 협동체가 안정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원초적 입장에서 구성원들이 합의한 정의의 원칙에 따라 사회의 기본적 가치가 분배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의 활용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을 : **사회는 독립적 개인들의 합리적 이기심이 인도하는 시장적 상황에서 개별적인 경제 행위를 하는 자발적 교환의 체계일 뿐이다.** 모든 소유물은 개인들 간의 자발적 교환 체계의 결과물이다. 개인들은 소유 자격이 있는 소유물에 대해서 불가침의 권리를 갖는다. 개인이 갖는 소유물에는 개인의 자연적 재능이나 능력뿐만 아니라 우연한 행운에 의해 획득한 모든 종류의 것이 다 포함된다.



- 선지:

- ① A :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가?
- ② B : 사회의 기본적 가치 모두는 어떤 경우에도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하는가?
- ③ B :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여 사회에 이익을 제공한 사람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가?
- ④ C : 개인은 소유 과정과 관계없이 모든 소유물에 대해서 소유 자격을 갖는가?
- ⑤ C : 사회 성원들은 자연적 재능을 공유 자산으로 보고 공정하게 경쟁해야 하는가?

- 문제분석 : 갑은 롤스이고, 을은 노직이다. 롤스는 협동체로서의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최소 수혜자의 협력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보장되는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노직은 자발적 교환 체계로서의 사회에서 개인은 소유 자격이 있는 소유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가진다고 본다.

- 정답찾기 : ③ 롤스는 타고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여 최소 수혜자를 포함한 사회 성원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준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줄 수 있다고 본다.

- 오답피하기 :

- ① 롤스와 노직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② 롤스는 사회의 기본적 가치 중 사회적 지위나 물질적 재화는 차등 분배할 수 있다고 본다. ④ 노직은 취득과 이전, 그리고 교정의 원칙에 근거해 정당하게 얻은 것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인정한다. ⑤ 노직은 자연적 재능이 개인의 소유에 해당한다고 본다

3) 법적 정의(사형제, 형벌 윤리)

칸트

사법적 형벌은 결코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 사회를 위해서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한낱 수단으로서 가해질 수는 없고, 오히려 그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항상 그 때문에 그에게 가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결코 타인의 의도들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될 수는 없고, 물권의 대상들 중에 섞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형벌에 있어서 공적인 정의가 의존하는 원리는 동등성의 원리이다. 오직 보복법만 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가 살인을 했다면 그는 죽어야만 한다.

누구도 그가 형벌을 의욕했기 때문이 아니라 형벌을 받아야 할 행위를 의욕했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것이다. 사형은 동등성의 원리에 따른 것이며, 정당한 보복의 수단이지만 인간을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한 것이 아니다.

베카리아

사형 제도에 대한 베카리아의 관점

- 법은 각 사람의 개인적 자유 중 최소한의 몫을 모은 것 이외의 어떤 것도 아니다. 법은 개개인의 특수 의사의 총체인 일반 의사를 대표한다. 그런데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권능을 타인에게 기꺼이 양도할 자가 세상에 있겠는가? 각 사람의 자유 가운데 최소한의 몫의 희생 속에 어떻게 모든 가치 중 최대한의 것인 생명 그 자체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

- 형벌이 정당화되려면 그 형벌은 타인들의 범죄를 억제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강도만을 지녀야 한다. 범죄로 인한 이득이 아무리 큰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 대가로 그 자신의 자유를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상실할 것을 택할 자는 없다. 따라서 사형을 대체한 종신 노역형만으로도 가장 완강한 자의 마음을 억제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엄격성을 지니고 있다. 나아가 종신 노역형은 사형 이상의 확실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말하고 싶다.

- 베카리아, “범죄와 형벌” -

베카리아는 자신의 생명권을 양도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므로 사회 계약의 내용 속에 사형은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베카리아는 범죄억제라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사형보다는 종신 노역형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인간의 의식에 큰 효과를 끼치는 것은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도이다. 사형은 사람들에게 야만성의 실례를 보여 주는 까닭에 유해하다. 사형은 근원적 시민 계약에 포함될 수 없기 때문에 옳지 않다.

실전 모의고사 1회 2번: 사형제

- 주의해야 할 부분

선지 ㄱ: 베카리아가 형벌을 유용성의 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본 것은 맞지만 베카리아가 ‘만약 사형제가 유용성이 높다고 해도’ 사형제를 허용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베카리아는 유용성의 차원에서 사형 제도보다는 종신 노역형이 더 유용한 형벌이라고 보았다.

- 제시문

베카리아) 사회 조직은 구성원 모두의 총의로 움직인다. 그러나 사회를 조직하는 사람들이 생명을 탈취할 권능까지 부여받은 것은 아니다.

어느 누가 자기 생명을 박탈할 권리를 타인에게 위임하였겠는가? 사형은 하나의 권리가 아니고 또 권리일 수도 없다.

사형은 한 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이 국민의 생명을 파멸시키는 선전 포고이다.

- 선지

ㄱ. 사형 제도를 유용성의 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 O

ㄴ. 국가는 개인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를 가질 수 없다. O

ㄷ. 형벌의 목적은 근본적으로 인과응보적 응징에 있다. X

ㄹ. 살인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구성원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정의이다. X

- 해설: 베카리아의 사상적 관점 이해

문제분석: 제시문은 사형 제도에 대한 베카리아의 입장이다.

베카리아는 사형 제도가 종신 노역형에 비해 범죄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고 보아 사형 제도에 반대하였다.

정답찾기:

ㄱ. 베카리아는 유용성의 차원에서 처벌의 예방적 효과를 강조한다.

ㄴ. 베카리아는 어느 누구도 국가에게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오답피하기:

ㄷ. 응보주의적 관점에 해당한다.

ㄹ. 베카리아는 유용성의 차원에서 정의 문제에 접근하며, 사형 제도보다 종신 노역형이 유용하다고 주장한다.

실전 모의고사 2회 사형제

- 주의해야 할 부분: 베카리아- 사회 계약으로는 사형제가 정당화되지 않는다.

- 제시문

갑(칸트) : 형벌은 언제나 그리고 오직 범죄자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부과되는 것이어야만 한다. 사회가 해체될지라도 그 전에 그때까지 감옥에 남아 있던 마지막 사람까지 살인자에 대한 처형은 집행되어야만 한다.

을(베카리아) : 사회를 조직하는 사람들이 생명을 탈취할 권능까지 부여받은 것은 아니다. 어느 누가 자신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를 타인에게 위임하였겠는가? 사형은 하나의 권리가 아니고 또 권리일 수도 없다. 사형은 종신 노역형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 선지

사형 제도에 대한 갑(칸트), 을(베카리아)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갑은 ㉠ 응보적 관점에서 사형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 사형수를 사형시키는 것이 그를 목적으로 대우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반면, 을은 ㉢ 사회 계약론적 관점에서 생명을 박탈할 권리는 합의에 따른 산물임을 주장하였고, ㉣ 형벌이 지닌 강도보다는 지속성의 요소를 중시하였다.

갑, 을은 공통적으로 ㉤ 형벌은 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당한 수단이 된다고 보았다.

- 해설: 사형 제도에 대한 칸트와 베카리아의 입장 비교

- 문제분석 : 갑은 칸트, 을은 베카리아이다. 칸트는 형벌은 오직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범죄에 대한 응당한 보복으로써 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베카리아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를 국가에 위임하지 않았으므로 국가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고 본다. 베카리아는 형벌의 강도보다 지속성을 중시하여 사형 제도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다.

- 정답찾기

㉠ 베카리아는 사회 계약론의 관점을 취하면서 개인이 사회 계약의 산물인 공동체에게 사형의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생명을 박탈할 권리가 합의에 따른 산물이라는 주장은 베카리아의 입장으로 볼 수 없다.

- 오답피하기

㉡ 칸트는 응보적 관점에 입각해 사형 제도를 찬성하였다.

㉢ 칸트는 사형수를 사형시키는 것이 그를 수단으로 삼지 않고 목적으로 대우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 베카리아는 형벌이 지닌 지속적 효과를 형벌의 강도보다 더 중시 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베카리아는 사형이 종신 노역형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칸트와 베카리아는 공통적으로 형벌이 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당한 수단이라고 보았다.

실전 모의고사 5회 사형제

- 제시문:

갑(베카리아) : 사형 제도는 범죄 억제책으로서 큰 효과가 없다. 인간의 의식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사형은 사람들에게 야만성의 실례를 보여 주는 까닭에 유해하다. 그리고 인간이 사회 계약을 맺을 때 생명에 대한 권리를 주권자에게 위탁한 것은 아니다.

을(칸트) : 사법적 형벌은 결코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한낱 수단으로서 가해질 수는 없고, 오히려 그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에게 가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결코 타인의 의도들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형벌에 있어 공적인 정의가 의존하는 원리는 동등성의 원리이다.

- 선지:

	질문	대답	
		갑	을
①	형벌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므로 악인가?	예	예
②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가?	예	예
③	형벌은 사회적 유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하는가?	예	아니요
④	범죄자는 형벌을 의욕한 것이므로 처벌되어야 하는가?	아니요	예
⑤	국가가 갖는 형벌권의 내용에 사형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아니요	아니요

- 해설: 형벌에 대한 베카리아와 칸트의 입장 비교

- 문제분석 : 갑은 베카리아이고, 을은 칸트이다. 베카리아는 사형 제도가 범죄 예방의 효과가 작고 사회 성원의 계약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근거로 사형 제도에 반대한다. 반면에 칸트는 사형 제도를 응보주의적 관점에서 정당한 보복의 수단이라고 본다.

- 정답찾기 : ③ 베카리아는 형벌이 범죄 예방이라는 사회적 유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반면, 칸트는 형벌은 사회적 선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 오답피하기 :

① 칸트는 형벌이 범죄자를 자율적 존재로 존중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② 베카리아는 부정의 대답을, 칸트는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베카리아에 의하면 형벌의 정도는 범죄 예방 효과에 비추어 정해져야 한다.

④ 칸트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칸트에 의하면 범죄자는 형벌을 의욕한 것이 아니라 형벌을 받을 행위를 의욕한 것이다.

⑤ 베카리아에 의하면 인간이 사회 계약을 맺을 때 생명에 대한 권리를 주권자에게 위탁한 것은 아니므로 국가는 사형에 대한 권리를 갖지 않는다. 그러나 칸트는 사법적 형벌의 하나로 사형 제도를 인정한다. 그러므로 칸트만 긍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벤담과 공리주의(일반 예방주의, 특수 예방주의)

공리주의적 관점 : 범죄 예방과 사회 전체의 행복 증진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찬반 여부를 판단함

일반 예방주의 : 사형은 흉악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존치해야 함

특수 예방주의 :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가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인데, 사형은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함으로써 그러한 목적 자체를 부정하는 것임. 따라서 사형 제도에 반대함

형벌의 네 가지 목적

- 첫 번째 목적 : 모든 위법 행위를 방지하는 것
- 두 번째 목적 : 가장 해로운 위법 행위를 방지하는 것
- 세 번째 목적 : 해악을 줄이는 것
- 네 번째 목적 : 최소의 비용으로 작용하는 것

형벌과 위법 행위 사이의 비례의 규칙

- 규칙 1. 위법 행위의 이득을 능가하라.
- 규칙 2. 작은 위법 행위보다 큰 위법 행위에 대항하는 데 더 투자하라.
- 규칙 3. 두 위법 행위 중 보다 가벼운 쪽을 택하도록 유도하라.
- 규칙 4. 해악의 각 부분에 대해 처벌하라.

모든 법이 공통으로 가지거나 가져야 할 일반적 목적은 공동체 전체의 행복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그러한 행복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는 모든 것들을 가능한 한 제거해야 한다. 달리 말하면, 해악을 제거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형벌은 그 자체로 악이다. 공리의 원칙에 따르면 만약 어쨌든 형벌이 허용 되어야만 한다면 오직 그것이 더 큰 악을 제거하리라고 보장하는 한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형벌의 목적은 오직 범죄자가 시민들에게 새로운 해악을 입힐 가능성을 방지하고, 타인들이 유사한 행위를 할 가능성을 억제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형벌 및 그 집행의 수단은 범죄와 형벌 간의 비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인간의 정신에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인상을 만들어 내는 동시에 수형자의 신체에는 가장 적은 고통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실전 모의고사 3회 5번 사형제

- 주의해야 할 부분:

베카리아의 제시문이 특이합니다. 제시문에서 강조한 부분이 베카리아라고 확인하고 갑시다.
ㄱ, ㄴ이 베카리아와 공리주의(벤담)의 공통점이라는 점 체크하고 갑시다.

- 제시문:

베카리아 : 누구도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권능을 타인에게 기꺼이 양도하지 않는다. 형벌은 자신의 노동으로 그가 사회에 끼친 해악을 속죄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리주의(벤담) : 모든 법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거나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할 일반적인 목적은 공동체 전체의 행복을 증진하는 것이다.

칸트 : 공적인 정의가 표준으로 삼는 형벌의 원리는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더 기울지 않도록 하는 것, 즉 정의의 천칭(天秤)이 가리키는 동등성의 원리이다. 오직 보복법만이 형벌의 양과 질을 제시할 수 있다.

- 선지:

<보기>

- ㄱ. 형벌의 목적은 사회에 해악을 초래할 범죄 발생의 억제에 있는가?
- ㄴ. 형벌은 그 자체로 범죄자의 인격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해 주는 것인가?
- ㄷ. 형벌은 희생된 개인과 그 가족의 고통 해소만을 위해 집행 되어야 하는가?
- ㄹ. 형벌은 지속적인 본보기로 작용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기여해야 하는가?

- 해설: 베카리아, 벤담, 칸트의 형벌관 비교

문제분석 : 갑은 베카리아, 을은 공리주의적 형벌관을 주장하는 벤담, 병은 응보주의적 형벌관을 주장하는 칸트이다.

정답찾기 : ㄱ. 베카리아와 벤담 모두 형벌은 사회적으로 해악을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칸트는 사법적 형벌은 결코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 사회를 위해서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한낱 수단으로서 가해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ㄹ. 베카리아와 벤담 모두 형벌은 일반인들에 대해 지속적인 본보기 역할을 함으로써 지속적인 범죄 예방 효과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답피하기 : ㄴ. 칸트는 형벌이 범죄자의 인격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해 주는 조처라고 주장한다.

ㄷ. 베카리아, 벤담, 칸트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실전 모의고사 4회 사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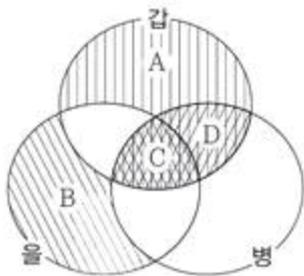
- 주의해야 할 부분: 무난한 선지들. 큰 체크하기.

- 제시문:

갑(베카리아) : 형벌은 지속적 효과를 가질 때 범죄를 더 잘 예방할 수 있다. 사형은 한 국민에 대해 국가가 이 생명을 파멸시키는 선전 포고이다.

을(칸트) : 형벌에 있어 공적인 정의의 원리와 기준은 등가성의 원리이다. 자신의 개인적인 판단이야 어찌 되었든 법정에서는 오직 응보의 권리만이 형벌의 양과 질을 결정할 수 있다.

병(공리주의) : 형벌은 모두 그 자체로서 악이다. 공리성의 원리에 의할 때, 만약 형벌이 인정될 수 있다면, 그것은 더욱 큰 어떤 악을 없애는 것을 보장하는 한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비례>	
A :	갑만의 입장
B :	을만의 입장
C :	갑, 을, 병의 공통 입장
D :	갑과 병만의 공통 입장

- 선지:

- ㄱ. A : 사형은 한 시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므로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
- ㄴ. B : 형벌은 응보 이외에 다른 선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지 말아야 한다.
- ㄷ. C : 형벌의 본질은 범죄자와 그 밖의 사람들의 행위를 통제하는 것이어야 한다.
- ㄹ. D : 형벌은 범죄자로부터 해악을 입을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집행되어야 한다.

- 문제분석: 갑은 베카리아, 을은 칸트, 병은 벤담이다. 베카리아는 개인이 자신의 생명을 국가에 위임하지 않았고, 국가도 개인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다고 하면서 사형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칸트는 형벌의 본질은 응보에 있으며, 응보주의에 바탕을 둔 사형은 인간을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벤담은 형벌과 위법 행위 간에는 비례의 규칙이 성립해야 한다고보아 형벌의 정도는 위법 행위에서 얻는 이득의 가치를 능가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비례의 규칙은 공리의 원리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정답찾기:

- ㄱ. 베카리아에게만 해당되는 진술이다. 칸트는 사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벤담은 형벌은 그 자체로 악이나 공리성의 원리에 의거하여 더욱 큰 어떤 악을 없애는 것이 보장된다면 사형까지도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 ㄴ. 칸트에게만 해당되는 진술이다. 칸트에게 있어서의 형벌은 응보이다. 반면 베카리아와 벤담에게 있어서의 형벌은 다른 선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 가능하다.
- ㄷ. 베카리아와 벤담에게만 해당되는 진술이다. 베카리아와 벤담에게 있어서의 형벌은 공리의 원리에 근거한다.
- 오답피하기 : 칸트에게 해당되지 않는 진술이다. 칸트에게 있어서의 형벌의 본질은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내리는 응보이다.

11강. 인권 존중과 공정한 사회

1) 롤스의 시민 불복종

롤스가 제시한 시민 불복종의 특징

공개성 : 은밀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공익성 : 자신의 이익 추구가 아니라 정의로운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양심적 행동이 되어야 함

최후의 수단 : 합법적인 개혁의 방법을 동원했으나 효과가 없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해야 함

비폭력성 : 폭력적이거나 파괴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처벌 감수 : 위법에 따른 처벌을 감수함으로써 정당한 법체계를 세우려는 운동임을 분명히 해야 함

롤스의 시민 불복종

시민 불복종은 그것이 비록 법의 바깥 경계선에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법에 대한 불복종을 나타내고 있다. 그 법을 어기긴 하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은 그 행위의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인 성격과 그 행위의 법적인 결과들을 받아들일겠다는 의지에 의해 표현된다. 이와 같은 법에의 충실은 다수자로 하여금 그 행위가 사실상 정치적으로 양심적이고 진지하며 또한 공중의 정의감에 호소하려고 의도된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된다. 완전히 공개적이고 비폭력적인 것은 우리의 성실성을 보증하기 위한 것인데, 그 이유는 우리의 행위가 양심적이라는 것을 다른 이에게 확신시키거나 심지어 우리 자신 앞에서조차도 이것을 확신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 롤스, “정의론” -

▶ (상위) 자료는 롤스의 시민 불복종에 대한 견해를 보여 준다. 롤스는 시민 불복종을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일어나고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이기는 하지만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라고 규정한다. 그는 시민 불복종은 성격상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법에 대한 불복종이므로 공개적이고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민들의 부정한 법에 대한 불복종은 공유된 정의관에 의해 정당화된다. 이러한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국가에서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들에 의해서만 생긴다. 특히 평등한 기본적 자유 원칙의 침해는 굴종이 아니면 반항을 부른다.

시민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이기는 하지만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이다. 사회의 기본 구조가 정의롭거나 혹은 그러한 상황에서 합당하게 기대할 만큼 정의로운 경우, 당연히 모든 사람은 그에게 요구되는 것을 행해야 할 자연적 의무를 갖게 된다. 각자는 약속에 의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의 자발적인 행위에 상관없이 구속을 받는다. 헌법이 올바르게 또한 우리가 거기에서 오는 혜택을 계속 받기로 했다고 가정한다면 다수자가 제정한 것이 비록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복종 할 책무와 의무를 가진다. 하지만 언제나 그러한 것은 아니고 부정의를 일정한 한계를 넘지 않을 조건하에서 그렇다.

대체로 질서 정연하면서도 정의에 대해 다소 심각한 위반도 일어나는 사회에서 시민 불복종은 우리의 실정을 최종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법의 바깥 경계선에 있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법에 대한 불복종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 같은 행위는 우리의 행위가 공동체의 정치적 신념에 충분한 도덕적 기초를 갖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시민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의 부정의를 시정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요구되는 의무이기도 하다.

입헌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 불복종 행위는 마지막 수단이며, 만약 그러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으려면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목표는 사회 정의의 기본 원리에 사회가 따르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 합법적인 개혁의 방법, 즉 의회, 청원, 선거를 시도했지만 그것들이 소용이 없어야 한다. 셋째 시민 불복종의 전략과 목표는 보편화가 가능해야 한다. 넷째 시민 불복종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라는 합당한 전망이 있어야 한다.

실전 모의고사 3회 15번 시민 불복종

주의해야 할 부분: 드워킨이라는 사상가는 수능과 평가원에서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교과서에도 간략하게 언급되고, 역대 수완에서는 자주 출제되었던 사상가입니다. 주의는 해야 하겠죠. 만약 이번 수능에서 드워킨이 출제된다면, '제시문 독해'를 꼼꼼하게 해서 선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보통 수능에 처음 출제되는 사상가의 경우 제시문에서 힌트를 많이 주거든요.

드워킨이 “시민 불복종을 양심(인격), 정의, 정책에 근거한 불복종으로 나누어 주장” 했다는 부분은 체크하고 갑시다.

- 제시문:

갑(롤스) : 시민 불복종은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화를 주기 위해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평화적이기는 하지만,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이다. 이것은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법에 대한 불복종을 표현한다.

을(드워킨) : 헌법은 정치, 도덕의 근본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를 어기는 법이 있다면, 그와 같은 법은 헌법 정신에 비추어 그 정당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베트남 전쟁과 관련해 미국의 징병법은 대학생의 징병을 유예 또는 면제했는데, 이는 평등한 법적 보호라는 헌법 정신을 어긴 것이다.

- 선지:

- ① 갑(롤스)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 위반을 시민 불복종의 전제 조건으로 주장한다.
- ② 갑(롤스)은 시민 불복종은 개인의 도덕 원칙이나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본다.
- ③ 을(드워킨)은 시민 불복종은 양심이 아닌 정의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④ 을(드워킨)은 시민 불복종은 공리주의적 계산에 의한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고 본다.
- ⑤ 갑(롤스), 을(드워킨)은 시민 불복종은 공유된 정의관이 아닌 양심에 호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해설: 롤스와 드워킨의 시민 불복종 비교

문제분석 : 갑은 롤스, 을은 드워킨이다. 롤스는 시민 불복종을 공동체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정치적 행위로 보며, 드워킨은 헌법 정신에 기초해 그 타당성이 의심받는 법에 대한 불복종을 주장한다.

정답찾기 : ② 롤스는 개인의 도덕 원칙이나 종교적 가르침에 의한 시민 불복종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본다.

오답피하기 : ① 롤스는 차등의 원칙에 기초한 시민 불복종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본다.

③ 드워킨은 시민 불복종을 양심(인격), 정의, 정책에 근거한 불복종으로 나누어 주장한다.

④ 시민 불복종을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정당화하는 대표적인 인물은 싱어이다.

⑤ 롤스는 시민 불복종은 양심과 신중성에 기초한 정치적 신념의 표현으로 정상적인 호소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때 공유된 정의관에 호소하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한다. 드워킨은 양심 또는 인격에 의한 시민 불복종을 인정한다.

2) 소로의 시민 불복종

시민은 한순간이라도 자신의 양심을 입법자에게 맡겨야 하는가?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 단 한 명의 사람이라도 부당하게 가두는 정부 밑에서 의로운 사람이 진정 있을 곳은 감옥이다.

우리는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가 떠맡을 권리가 있는 유일한 의무는, 어느 때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가 떠맡아야 할 유일한 책무는 언제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다. …(중략)… 불의가 당신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불의를 행하는 하수인이 되라고 요구한다면, 분명히 말하는데, 그 법을 어기라.

실전 모의고사 2회 시민 불복종

- 주의해야 할 부분: 기존 기출이랑 동일한 내용. ⑤를 챙겨갈 것. ⑤은 한 번 기출된 내용으로 낯설 수 있으니 챙겨가자.

- 제시문

롤스 : 사회가 동등한 사람들 간의 협동 체제로 해석된다고 할 때, 심각한 부정의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그 사회의 부정한 법에 복종할 필요가 없다. 사실상 시민 불복종은 비록 불법적인 것이긴 하지만 입헌 체제를 안정시키는 방법이다.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부정의에 항거함으로써 정의로부터의 이탈을 방지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것을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당한 시민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 속에 안정을 가져다준다.

소로 : 만일 불의라는 기계가 오직 저 자신만을 위해 용수철이나 도르래 등을 갖고 있다면, 당신은 과연 치료가 병폐보다 더 나쁠 것인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당신으로 하여금 남에게 불의한 자가 되기를 강요하는 성질의 것이라면 나는 말한다. 양심에 따라 그 법을 어겨라. 당신의 생명으로 하여금 기계를 멈추는 역마찰이 되게 하라.

- 선지

- ①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 ② 소로는 시민 불복종의 근거를 개인이 옳다고 믿는 양심에 두었다.
- ③ 롤스는 소로와 달리 시민 불복종이 공유된 정의관에 따를 때 정당화된다고 보았다.
- ④ 소로는 롤스와 달리 시민 불복종이 최후의 수단이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 ⑤ 롤스, 소로는 시민 불복종이 신중함에 기초하여 표출된 것이라고 보았다.

- 해설: 시민 불복종에 대한 롤스와 소로의 입장 비교

- 문제분석 : 갑은 롤스이고, 을은 소로이다. 롤스는 법률과 정책이 공동체의 공유된 정의관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경우에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그는 시민 불복종 그 자체는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것이지만, 결코 법체계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즉 시민 불복종은 정의로운 사회(질서 정연한 사회)를 향하는 과정으로서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그 법이 공유된 정의관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정의로운 사회의 안정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본다. 소로는 시민 불복종의 정당성을 개인의 양심에 둔다.

소로는 양심에 비추어 볼 때 정의롭지 못한 국가는 불의라는 기계에 비유될 수 있다고 하면서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 국가라는 기계를 멈추는 역할을 하라고 말한다.

- ④ 시민 불복종이 최후의 수단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은 롤스이다.

- 오답피하기

- ①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정의롭지 못한 사회, 특히 독재 국가의 경우에는 시민 불복종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 ② 소로는 시민 불복종의 근거를 개인의 양심에 둔다.
- ③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공유된 정의관에 따를 때 정당화된다고 본다.
- ⑤ 롤스와 소로 모두 시민 불복종이 신중함에 기초하여 나타난 신념의 표현이라고 본다.

실전 모의고사 4 시민 불복종

- 주의해야 할 부분: 그냥 무난하다. 단, 롤스가 시민 불복종을 허용하는 4가지 사례들을 간단히 체크해두자.

- 제시문:

갑: 시민 불복종을 공동체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정치적 행위로 본다면, 그것을 구체적이고 분명한 부정의의 사례나 더욱이 다른 부정의를 제거하는 길을 방해하는 것에 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 때문에 시민 불복종을 정의의 제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대한 심한 위반이나 제2원칙 중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대한 현저한 위배에 국한시켜야 한다.

<가상대담 상황>

시민 불복종은 어떤 경우에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 선지: (옳지 않은 선지 고르는 문항)

- ① 개인이 재산을 소유하거나 이주를 할 권리가 거절될 경우 ○
- ② 어떤 소수자에게 투표나 직책을 맡을 권리가 거절될 경우 ○
- ③ 국가가 소수자의 종교 단체를 부당한 이유로 억압할 경우 ○
- ④ 개인의 양심적인 신념에 의해 법이 부정의하다고 판단될 경우 XXXX
- ⑤ 국가가 어떤 단체가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부당하게 억압할 경우 ○○

- 해설: 롤스의 시민 불복종 이해

- 문제분석: 제시문의 사상가는 롤스이다. 롤스는 어느 정도 정의로운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 다수의 정의관에 어긋나는 법과 정책의 개선을 위한 정치적 행위로서 시민 불복종을 주장하였다. 한편 롤스는 시민 불복종을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대한 심한 위반이나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대한 현저한 위배에 국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정답찾기: ④ 롤스의 시민 불복종 정당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롤스는 사회적 다수에 의해 공유된 공공적 정의관에 근거해서 시민 불복종을 전개해야 한다고 본다.

- 오답피하기:

- ① 개인이 재산을 소유하거나 이주를 할 권리의 거절은 롤스의 정의의 제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다.
- ② 어떤 소수자에게 투표나 직책을 맡을 권리를 거절하는 것은 롤스의 정의의 제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시민불복종이 정당화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다.
- ③ 국가가 소수자의 종교 단체를 부당한 이유로 억압하는 것은 롤스의 정의의 제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시민불복종이 정당화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다.
- ⑤ 국가가 어떤 단체가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것은 롤스의 정의의 제2원칙인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다.

12강. 직업윤리

1) 동서양의 직업윤리

동양의 유교 문화권 :

- 공자 :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부모는 부모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 → 자신이 맡은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는 정명(正名) 정신을 강조함
- 맹자 : 직업을 통해 백성에게 일정한 생활 근거[항산(恒産)]를 마련해 줄 것을 강조함
- 우리나라의 장인(匠人) 정신 : 자신의 일에 긍지를 가지고 전념하거나 한 가지 기술에 정통하려고 노력할 것을 강조함

맹자: 곡식을 주고 술과 시루 그리고 농기구와 바꾸는 것이 도공과 대장장이에게 손해를 입히는 일이 아니라면, 도공과 대장장이가 자신이 만든 기계와 그릇을 주고 곡식과 바꾸는 것 역시 어떻게 농부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겠는가? 또한 사람의 몸에는 백공(百工)들이 만드는 것들이 다 필요한데, 만일 반드시 모든 것을 손수 만들어서 사용해야 한다면 그것은 천하의 사람들을 이끌어서 지쳐 떨어지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인은 마음을 쓰고 소인은 힘을 써야 한다.

공자: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한다. 임금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백성의 신뢰를 얻어야 하며, 씩씩이를 줄이고 백성을 사랑해야 한다. 신하는 먼저 맡은 직분을 경건히 수행하고 녹봉은 그 다음에 생각해야 한다.

2) 칼뱅&막스 베버

- 근면하고 성실한 자세로 직업에 임해야 한다는 소명(召命) 의식을 강조함
- 칼뱅 : 직업을 ‘신으로부터 부름 받은 자기 몫의 일’이라고 보면서 자신의 직업에 충실히 임하는 것이 바로 신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라고 주장함

노동을 ‘신이 규정한 삶의 최고 목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청교도는 소명을 인식하고 소명에 따라 노동하였다. 이러한 노동이 영리 추구와 결합하고 금욕적 절약을 통해 자본을 형성하여 자본주의 정신의 토대가 되었다.

프로테스탄트적 금욕은 노동을 직업으로, 구원을 확신하기 위해 가장 좋은 수단으로 파악함으로써 심리적 동인을 만들어 냈다. 그리고 이 금욕은 다른 면에서 기업가의 화폐 취득도 ‘소명’이라고 해석했다.

프로테스탄트의 금욕은 향락과 낭비를 막는다. 이러한 금욕으로 인해 재화의 획득이 구원의 증표로 정당화되었다. 금욕을 바탕으로 한 영리 활동이 근대 기업가의 소명이라면, 노동은 근대 노동자의 소명이다.

실전 모의고사 1회 11번: 직업 윤리

- 주의해야 할 부분: L와 C 선지 둘 다 ‘모든’ 부분이 틀렸다는 점 체크하자. 수능에서는 절대 이런 식으로 선지를 구성하지 않는다.

- 제시문

칼뱅) 신은 여러 가지 삶의 계층과 삶의 양식들을 구분해 놓음으로써 각 사람이 해야 할 일의 순서를 정해 두셨다. 신은 그 같은 삶의 양식들을 소명이라 하셨다. 그러므로 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위치를 신께서 정해 주신 초소라고 생각해야한다.

플라톤) 국가의 수호자는 사유 재산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들은 공동생활을 해야 한다. 이들에게는 자신의 영혼 안에 신성한 금이 있으므로 세상의 금을 멀리해야 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이들은 자신도 구하고 나라도 구할 수 있다.

- 선지:

ㄱ. 칼뱅은 직업을 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이해한다.
 ㄴ. 칼뱅은 신의 명령에 따라 얻어진 모든 이익을 이웃과 공유해야 한다고 본다.
 ㄷ. 플라톤은 공익 실현을 위해 모든 계층이 사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본다.
 ㄹ. 칼뱅, 플라톤은 사회 구성원이 역할을 분담하여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

- 해설: 직업에 대한 칼뱅과 플라톤의 관점 이해

문제분석 : 갑은 칼뱅, 을은 플라톤이다. 칼뱅은 직업을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자기 몫의 일이라고 본다.

플라톤은 국가의 수호자 계층이 공직을 수행할 때 개인의 이기심이 개입하지 않도록 사유 재산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정답찾기 :

ㄱ. 칼뱅은 자신의 직업에 충실히 임하는 것이 바로 신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ㄹ. 칼뱅과 플라톤은 사회 구성원이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

오답피하기 :

ㄴ. 칼뱅은 자신의 직업에 충실히 임하는 것이 바로 신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로 인해 얻어지는 현실적인 부와 명예 등을 정당화한다.
 따라서 칼뱅이 직업으로 얻은 모든 이익을 이웃과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
 ㄷ. 플라톤은 모든 계층이 사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3) 플라톤

저마다 타고난 성향에 따라 한 가지 일에 배치되어야만 된다. 이는 각자가 한 가지 일에 종사함으로써 여럿이 아닌 하나가 되도록 하고, 나라 전체가 자연적으로 여럿이 아닌 ‘한 나라’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국가는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면서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정의롭게 되며, 사물의 참모습을 인식한 철학자가 통치해야 한다.

실전 모의고사 5회 직업 윤리

- 주의해야 할 부분: 체크한 부분 주의하기.

제시문:

갑(칼뱅) : 신은 우리 모든 사람이 자기의 소명에 관심을 둘 것을 요구하신다. 신은 각 사람에게 그 독특한 생활 양식에 따라 각자의 위치를 지정하셨다.

을(플라톤) : 사람들은 각기 다른 성향을 타고나서 저마다 다른 일에 종사하게 될 때 국가의 옳음이 실현된다. 각각의 것이 더 훌륭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한 사람이 한 가지 일을 타고난 성향에 따라 할 때이다.

- 선지:

ㄱ. 갑 : 일하지 않고 명상에만 몰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ㄴ. 을 : 사회 성원들이 정기적으로 역할을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ㄷ. 을 : 사회를 이루는 각 계층이 조화를 이룰 때 정의로운 국가가 실현된다.

ㄹ. 갑, 을 : 각자는 다양한 직업 활동을 통해 전인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 해설 : 칼뱅과 플라톤의 직업관 비교

- 문제분석 : 갑은 칼뱅이고, 을은 플라톤이다. 칼뱅은 직업 노동은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소명이며, 인간은 자신이 맡은 일에 충실함으로써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본다. 플라톤은 사람은 각자의 성향에 맞는 일을 맡아 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 정답찾기 :

ㄱ. 칼뱅은 일을 하지 않거나 기피하는 것을 신에 대한 불충으로 규정하였다. 반면 중세 시대에는 성직자로서 명상에 몰두하는 것을 세속에서 노동하는 것보다 가치 있게 여겼다.

ㄷ. 플라톤은 국가를 이루는 각 계층이 자신의 일을 훌륭하게 수행하여 조화를 이루면 정의로운 국가가 실현된다고 보았다.

- 오답피하기 : ㄴ, ㄹ. 플라톤은 자신이 맡은 일 이외의 다른 사람의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4) 마르크스의 노동관

마르크스가 주장한 노동 소외
 야만인이 모든 전쟁 기술을 개인의 책략으로 발휘한 것과 마찬가지로, 비록 작은 규모에서 이기는 하나 독립적인 농민 또는 수공업자도 지식과 판단력과 의지를 발휘했다. 그러나 *매뉴팩처에서는 그러한 노동력은 다만 작업장 전체를 위해서만 요구될 뿐이다. 생산상의 정신적 능력이 한 방면에서는 확대 되면서 다른 여러 방면에서는 완전히 소멸된다. 부분 노동자들이 잃어버리는 것은 그들과 대립하고 있는 자본에 집적된다. 부분 노동자들이 물질적 생산 과정에서 정신적 능력을 타인의 소유물로 또 자기를 지배하는 힘으로 상대하게 되는 것은 매뉴팩처적 분업의 결과다. 이 분리 과정은(지식과 노동의 분리) 개개의 노동자에 대해 자본가가 집단적 노동 유기체의 통일성과 의지를 대표하게 되는 단순 협업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이 분리 과정은 노동자를 부분 노동자로 전락시켜 불구자로 만드는 매뉴팩처에서 더욱 발전한다.

- 마르크스. “자본론” -

* 매뉴팩처(manufacture) : 산업 자본가가 임금 노동자를 고용해 도구, 작업장, 원재료 따위의 생산 수단을 제공하고 그들의 수공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을 하게 한 제도

▶ 마르크스는 매뉴팩처의 발전이 매뉴팩처 이전에 독립적이었던 노동자를 자본의 지위와 규율에 복종시킨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매뉴팩처가 발전하면 노동자는 작업 과정에서 특수한 기능만을 담당하는 부분 노동자로 전락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렇듯 마르크스는 매뉴팩처의 발전이 노동자를 창조적인 능력이나 소질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소외된 노동을 하는 기형 불구자로 만든다고 본 것이다.

노동은 인간이 자신의 자연적인 힘을 사용하여 자연과 관계를 맺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자가 생산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수단이 노동자를 사용하는 왜곡이 일어난다.

노동과 지식의 분리 과정은 개개의 노동자에 대해 자본가가 집단적 노동 유기체의 통일성과 의지를 대표하게 되는 단순 협업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이 분리 과정은 노동자를 부분 노동자로 전락시켜 불구자로 만드는 매뉴팩처에서 더욱 발전한다.

매뉴팩처는 노동자의 일체의 생산적인 능력과 소질을 억압하면서 특수한 기능만을 촉진함으로써 노동자를 기형적 불구로 만든다. 또한 독립적이었던 노동자를 자본의 지휘와 규율에 복종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자 자신들 사이에 등급적 계층을 만들어 내며 개별 노동력을 완전히 장악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이 분화되자 각 개인은 하나의 일정한 배타적 영역을 갖게 되었다. 그는 한 사람의 사냥꾼, 한 사람의 양치기, 한 사람의 어부, 한 사람의 비평가이며, 생계 수단을 잃지 않고자 하는 한 계속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와 달리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아무도 배타적 영역을 갖지 않고 각자가 원하는 분야에서 스스로를 도야시킬 수 있다. 따라서 내가 마음먹은 대로 아침에는 사냥을, 오후에는 낚시를, 저녁에는 목축을, 밤에는 비판을 할 수 있다.

실전 모의고사 3회 12번

- 해야 할 부분: 그냥 평범한 문제입니다. 자주 기출된 사항이라, 이정도 내용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어야 하겠죠.

- 제시문:

갑(베버) : 금욕적 삶이란 삶의 모든 영역을 신의 뜻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교적으로 특별한 삶은 수도원이 아닌 세상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진다. 우리는 내세를 생각하면서 세상 안에서 자신의 생활 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을(마르크스) : 인간은 생존을 위해 자신에게 필요한 양식을 생산해 내기 시작하면서부터 자신을 동물과 구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자본주의에서의 기계적 노동 분업은 노동자를 기계로 전락 시킨다. 인간의 노동은 공산주의 사회에서 분업적 예측으로 부터 해방될 수 있다.

- 선지:

- ① 갑(베버)은 청교도에게 노동은 신의 영광을 표현하는 일이라고 본다.
- ② 갑(베버)은 청교도가 직업 노동에 의한 합리적 이윤 추구를 중시 한다고 본다.
- ③ 을(마르크스)은 노동이 인간의 고유한 본질을 실현하는 행위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 ④ 을(마르크스)은 기계에 예측된 노동 분업이 노동자의 소외를 더욱 심화시킨다고 본다.
- ⑤ 갑(베버), 을(마르크스)은 노동이 내세에서의 참된 행복을 위해 유용한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 해설:

12. 청교도와 마르크스의 직업 노동 비교

문제분석 : 갑은 베버이고, 을은 마르크스이다. 베버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근면과 금욕을 강조하는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자본주의 정신의 토대가 되었다고 설명했으며,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이 통제하는 기계에 예측된 분업화된 노동을 비판하였다.

정답찾기 : ⑤ 마르크스는 직업 노동을 내세의 참되고 영원한 행복과 관련지어 주장하지 않는다.

오답피하기 : ① 베버는 청교도의 금욕적 생활 방식과 합리적 노동을 신의 영광을 더하기 위한 활동으로 이해한다.

② 베버는 청교도가 규칙적인 직업 노동에 의한 이윤 추구하고 금욕적 삶을 신의 명령을 수행함으로써 신의 영광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이해했다고 본다.

③ 마르크스는 노동을 인간의 고유한 본질로 본다.

④ 마르크스는 자본이 통제하는 기계에 예측된 노동 분업으로 인해 노동자의 소외가 더욱 심화된다고 비판한다.

실전 모의고사 4회 직업 윤리

- 주의해야 할 부분: 아담 스미스의 입장은 생윤에서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수완에 마르크스와 대비되는 학자로 출제되었다. 일단 체크는 해두자.

- 제시문:

아담 스미스 : 분업은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사회가 미개한 상태에서는 한사람의 작업인 것이 진보된 상태에서는 여러 사람의 작업이 되는 것이 보통이다. 개량된 사회에서는 제조업자는 제조업자 이외의 그 무엇도 아닌 것이 통례이다.

마르크스 : 분업과 기계의 광범위한 활용으로 말미암아 노동자 계급의 노동은 자립성을 모두 상실했다. 노동자는 이제 기계의 단순한 부품이 되었다. 이 부품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순하고 단조로우며 배우기 쉬운 동작뿐이다.

- 선지:

- ① 갑(아담 스미스)은 한 사람의 노동자가 생산 과정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본다.
- ② 을(마르크스)은 분업이 하나의 기능만을 담당하게 하여 노동자의 창조적인 능력의 발휘를 방해한다고 본다.
- ③ 갑(아담 스미스)은 을(마르크스)과 달리 자본주의에서는 생산 수단이 노동자를 사용하는 왜곡이 일어난다고 본다.
- ④ 을(마르크스)은 갑(아담 스미스)과 달리 분업화된 노동은 인간 소외의 극복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⑤ 갑(아담 스미스), 을(마르크스)은 모두 소명 의식을 토대로 한 직업적 노동을 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본다.

13강. 예술, 종교와 윤리

1) 예술 윤리

예술에 대한 심미주의적 관점

① 예술의 자율성 강조 : 예술 그 자체를 위한 예술을 주장함

- 예술 지상주의, 순수 예술론 옹호
- 미적 가치와 도덕적 가치는 무관하다고 봄

② 와일드 : “예술가에게 윤리적 동정심이란 용서할 수 없는 매너리즘이다.”

③ 문제점 : 예술의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감을 간과하여 사회 질서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음

예술에 대한 도덕주의적 관점

① 예술의 사회성 강조 : 예술 작품은 도덕적 교훈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함

- 참여 예술론 옹호
- 예술이 가치가 있는 것은 그것이 지니는 윤리적 가치 때문이라고 봄

② 플라톤 : “예술의 존재 이유는 선(善)을 권장하고 덕성을 장려하는 데 있다.”

③ 문제점 : 미적 측면이 경시될 수 있으며, 예술가의 자유로운 창작을 제한할 수 있음

예술과 윤리의 조화로운 관계

① 인간의 삶은 미적 가치와 도덕적 가치 모두와 관계를 맺음

② 칸트 : “미(美)와 선(善)은 형식이 유사하므로 미는 선의 상징이다.”

순자

- 오직 군자만이 악(樂)을 알 수 있으니 성(性)을 살피 음(音)을 알고, 음을 살피 악을 알고 악을 살피 정치를 알게 되면 치도(治道)를 갖추게 된다. 그러므로 성을 알지 못하는 자와 더불어 음을 말할 수 없고, 음을 알지 못하는 자와는 악을 말할 수 없으니, 악을 알면 예(禮)에 가깝게 된다.

- 선왕이 예악(禮樂)을 제정한 것은 사람들을 절제시키기 위함이었다. 마(麻)로 지은 상복(喪服)을 입고 곡읍(哭泣)을 하는 것은 상사(喪事)의 규모를 절제하기 위한 것이고, 종(鐘)과 북의 음과 방패와 도끼 등의 춤을 추는 것은 조화와 안락을 위한 것이다. 혼인과 관계(冠?)의 제도를 행하는 것은 남녀를 구별하기 위함이며, 사향(射鄉)이나 술과 음식으로 빈객을 상대하는 것은 교제와 접대를 바르게 하기 위함이었다.

목자

- 예는 재물의 낭비를 가져올 뿐이다. 불필요한 낭비를 없애 백성의 수고로움을 덜어 준다면 천하에 이로울 것이다. 지금 오직 임금이나 대신들이 음악을 좋아하여 듣기만 한다면 국가는 어지러워지고 나라는 위태로워진다. 지금 오직 관리로 있는 사람이 음악을 좋아하여 듣기만 한다면 창고나 나라 곳간은 부실하게 된다. 지금 오직 농부된 사람이 음악을 좋아하여 듣기만 한다면 콩과 조가 부족하게 된다.

와일드(심미주의): 아름다운 사물은 오직 아름다움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아름다운 것에서 추악한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은 타락한 사람이며, 아름다운 것에서 아름다운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은 교양 있는 사람이다.

플라톤(도덕주의): 우리는 선과 우아(優雅)를 추구하는 타고난 재능의 장인들을 찾아내야 하네. 우리 공동체의 젊은이들이 건강한 곳에서 살 수 있도록 말일세. 건강한 곳에서는 모든 것이 이로워서 그들의 눈과 귀는 훌륭한 예술 작품의 영향만 받을 것이네. 그 효과는 좋은 곳에서 불어온 미풍처럼 건강을 가져다줄 거라네. 그리하여 어릴 때부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을 이끌어 이성(理性)의 아름다움을 받아들이고 그와 친숙해져 조화롭게 해 줄 것이네.

예술의 상업화

문화 상품은 그 특정한 내용이나 조화로운 구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치 원리에 의해서 지배된다. 즉 이윤 원리에 의해서 지배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상품이며 비즈니스일 뿐이다. 문화 산업의 최대 목적은 이윤 추구이며, 여기서 예술의 자율성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문화 상품에서 '대중'은 일차적인 대상이 아니라 계산의 대상이자 부차적 존재일 뿐이다. '대중'은 척도가 아니라 이데올로기일 뿐이다. 그래서 문화 산업은 대중들 자신으로부터 자발적으로 형성된 문화와 분명하게 구별된다. 뿐만 아니라 문화 산업은 자율적 작품들이 남긴 잔재들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한다. ? (중략) ? 문화 산업 내 대중문화는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규격화되고 동질적인 특색을 가지게 되며, 이것은 나아가 대중들을 획일화된 잘못된 총체성으로 통합되게 한다. 문화 산업의 대표이자 중심이 되는 대중문화는 이전의 대중문화와는 다른 양상으로 대중들 앞에 등장하며 오락과 유희를 제공하게 된다. 문화 상품이 주는 유희와 허위적 욕구의 충족은 현실의 고통을 잊게 만들고, 저항 의식보다는 도피를 꿈꾸게 한다. 결국 문화 상품은 주체들의 자발적인 능력을 빼앗고 둔화시킴으로써 수용자들이 적극적으로 사유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즉 문화 산업은 대중이 사회적 객체로서 자기의식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사회는 총체적으로 관리되는데, 이런 사회가 바로 '관리되는 사회'이다.

- 이수완, "아도르노와 대중음악" -

▶ 아도르노는 대중문화가 문화 산업의 대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아도르노는 대중문화는 기존의 지배 관계와 사회 체제를 정당화하고 재생산하여 사람들을 포섭하고 통제한다고 보았다. 그는 대중문화의 조종자들은 대중 매체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상업적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문화를 산업화함으로써 문화가 대중을 지배하는 수단이 된다고 보았다.

아도르노(예술의 상업성 비판): 오늘날 문화는 모든 것을 동질화시키고 있다. 영화와 라디오와 잡지는 개개 분야에 있어서나 전체적으로나 획일화된 체계를 만들어 내고 있다. 독점에서 대중문화는 모두 획일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데, 대중문화의 조종자들은 독점을 숨기려 하지도 않는다. 독점의 힘이 강화될수록 그 힘의 행사도 점점 노골화된다. 영화나 라디오는 예술인 척할 필요가 없다. 대중 매체는 단순히 장사일 뿐이다. 그들 스스로 자신을 산업이라고 부르며, 그들의 생산물이 사회적으로 유용한가 아닌가는 시장에서 얻어진 수입으로 평가받는다.

앤디 워홀(예술의 상업성 강조): 팝 아트는 콜라 같은 것입니다. 돈을 더 낸다고 더 좋은 콜라를 마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더 내면 수가 많아지지 내용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같은 것을 마십니다. 대통령이 마시는 콜라든,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마시는 콜라든, 길거리 건달이 마시는 콜라든 모두 같은 것입니다. 평등하고 쉽습니다. 비즈니스에서 성공하는 것은 가장 환상적인 예술입니다. 히피가 유행하던 시절의 사람들은 비즈니스의 개념을 격하했습니다. 히피들은 “돈은 더러운 것이다.” 또는 “일하는 것은 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돈 버는 일은 예술이고, 일하는 것도 예술이며, 돈을 잘 버는 비즈니스가 최고의 예술입니다.

2) 종교 윤리

종교와 과학의 관계

갈등 : "신앙은 천연두 바이러스에 비견할 만하지만 그보다 더 근절하기 어려운 해악 중 하나이다." VS "현대 진화론은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사탄과의 오랜 전쟁의 연장선이다."

독립 : "종교와 과학 간에는 상호 존중 및 우호의 협약, 즉 겹치지 않는 교도권(NOMA: Non - Overlapping MAgisterium)의 해법이 존재한다. 이는 외교적 태도가 아닌 윤리적이고 지성적인 토대에 입각해 있다."

대화 : "교회와 과학 공동체의 상호 작용은 필연적이다. 과학은 종교에서 오류와 미신을 걷어 낼 수 있고, 종교는 과학에서 맹신과 그릇된 절대 원칙을 걷어낼 수 있다."

통합 : "원자의 구조나 동물의 진화를 연구하든, 역사상의 한 시기나 한 성자의 종교적 체험을 연구하든, 그 주된 과정은 동일하다."
 - 알리스터 맥그래스, "과학과 종교, 과연 무엇이 다른가?" -

▶ 종교와 과학의 관계에 대한 분류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종교와 과학을 갈등, 독립, 대화, 통합의 네 가지 관계 체제로 나누는 것이다. 이 가운데 갈등은 종교와 과학 간 극단적 대립을 의미하는데, 이는 오늘날 학문적 영역에서는 힘을 잃었으나 일반 대중에게는 여전히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독립의 관점에서는 종교와 과학을 저마다의 규칙과 언어를 지닌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학문 분야 또는 실재의 영역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본다. 대화의 관점에서는 종교와 과학은 적극적으로 대화하면서 상호 이해를 증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양자의 서로 다른 정체성을 존중하면서 공동의 전제와 가정을 탐구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통합의 관점에서는 우주 전체는 분할할 수 없는 하나로 다루어져야 하며, 종교든 과학이든 인류의 모든 지식 탐구에는 동일한 기본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엘리아데: 세계는 성스러운 것, 존재의 다양한 양태를 발견하는 방식으로 드러난다. 무엇보다도 세계는 실존하고, 실제로 거기에 있고, 그리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 세계는 신들의 작품인 피조물로 자신을 드러낸다. 이 신의 작품은 스스로 성스러운 것의 여러 양상을 계시한다. 여러 가지 우주의 리듬은 질서, 조화, 항상성, 풍요성을 명백히 드러낸다. 우주는 전체로서 실재적이고 살아 있고, 또한 성스러움을 지닌 유기체이다. 즉 그것은 존재와 신성성의 여러 양태를 계시한다. 현존재와 성현(聖顯)이 서로 만나는 것이다.

간디: 개종은 세상에 평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은 매우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의 빛을 따라 삶을 살아감으로써 서로서로 최선의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신께 이르는 인간의 모든 노력을 더 증가시키게 되지요. 당신은 모든 종교의 상호 관용과 동등함의 입장 중 어느 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생각하십시오. 모든 위대한 종교는 근본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처럼, 다른 신앙에 대해서도 본연의 존경을 가져야 합니다. 상호 관용이 아니라 동등한 측면을 유념하십시오.

14강. 의식주 윤리와 다문화 사회의 윤리

1) 음식 윤리

현대의 식생활에 대한 윤리적 성찰

오늘날 식육용으로 길러지는 돼지의 90% 이상이 콘크리트와 강철로 지은 좁아 터진 축사에 갇혀 지낸다. 일생에 한번도 바깥나들이를 못하며, 풀밭을 밟아 보지 못한다. 심지어 밀짚 더미 위에서 잘 수조차 없다. 가장 철저히 갇혀 지내는 돼지는 번식용 암돼지이다. ... (중략)... 대부분의 동물 권리론자가 주장하는 형평성이란 동물에게 인간과 똑같은 권리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그들이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이익 관심을 공평하게 고려하는 것이다. 어떤 동물이 고통을 느낄 수 있다면, 그 고통은 인간이 느끼는 것이나 기억하는 것, 예상하는 것 등도 서로 다를지 모른다는 주장도 있다. 그 점을 인정하더라도, 또한 그러한 차이점이 사실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아기가 느끼는 고통은 악이다. 설령 그 아기가 가령 돼지보다 자기 인식 능력이 떨어지며 기억력이나 예상 능력 또한 나을 것이 없더라도 말이다. 고통은 위험에 대한 유용한 경고가 되며 따라서 가치가 있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고통만 있고 그것에 상응하는 혜택이 없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경우라고 해도 그러한 경험을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그 고통의 주체가 어떤 종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 피터 싱어 짐 메이슨, “죽음의 밥상” -

▶ 피터 싱어는 인간의 먹을거리의 문제는 윤리적 성찰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익 관심의 동등한 고려라는 원칙에서 인간의 육식을 위해 동물을 공장식으로 사육하는 행태를 비판한다. 그는 인간이 아닌 동물의 이익 관심에도 인간의 이익 관심에 표하는 것과 같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무엇을 먹을 것인지 결정하기에 앞서 먹을거리와 관련된 도덕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도덕 문제에 적용 가능한 윤리적 원칙에는 다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투명성입니다. 우리에게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둘째, 공정성입니다. 식품 가격에 생산 과정의 총비용을 반영할 때 식품 생산 비용을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에 전가해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인도주의입니다. 식품 생산과 소비에서 중요하지 않은 이유로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잘못입니다. 넷째, 사회적 책임입니다. 식품 관련 노동자들은 타당한 임금과 작업 조건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다섯째, 필요성입니다. 생명과 건강의 유지를 위해 적절한 영양을 얻기 위한 식품이 필요하며, 이는 다른 어떤 욕망보다 정당합니다.

2) 과시 소비(소비 문화)

자기 과시 수단으로서의 소비

문명화된 현대 사회에서 사회 계급을 구분하는 경계선은 점차 모호해지고 가변적인 것이 되어 가지만, 이러한 변화가 발생하는 모든 곳에서 상류 계급이 강요하는 명성의 기준은 사회 구조의 최하층까지 그 강압적인 영향력을 거침없이 확장한다. 그 결과 각 계급의 구성원들은 자신들보다 한 단계 높은 계급에서 유행하는 생활 양식을 자신들이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생활 양식으로 인정하고 그러한 이상을 추구하는 데 자신들의 에너지를 쏟아붓는다. 그런 이상의 달성에 실패하여 평판이 실추되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면 그들은 적어도 외견상으로라도 그렇듯 공인된 규범에 맞추어 생활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하는 것이다. 고도로 산업화된 사회에서 명성을 획득할 수 있는 근거는 다름 아닌 재력이다. 재력을 과시하는 방편인 동시에 명성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방편은 여가 활동과 과시적으로 재화를 소비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두 가지 방편은 모두 그런 여가나 소비의 가능성을 지닌 중하류 계급에서도 유행하기에 이른다. …(중략)… 도시에서는 남부럽지 않은 재산을 보유한 계층에 속한다는 사실을 보여 주기 위한 과시적 소비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출을 할 필요가 생긴다.

- 베블런, “유한 계급론” -

▶ 베블런은 유한 계급(the leisure class, 有閑階級)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기 위해 과시적으로 소비한다고 본다. 그는 사회의 각 계급은 자기보다 나은 지배 계급의 생활 양식을 본받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경쟁적 소비가 사회 구조 전반으로 확산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에 의하면 현대 사회에서 소비 생활을 포함한 인간의 경제적 활동의 원인은 자신의 이웃을 능가하려는 성향에 기반하는 것이다.

3) 거주 윤리

하이데거: 거주(居住)함은 인간 존재의 근본 특성입니다. 인간은 현존재로서 땅, 하늘, 신적인 것들, 죽을 자들의 본질을 사물들 안으로 가져와 소중히 보살피며, 세계 안에서 건축하고 사유하면서 거주합니다. 인간은 자기 공간의 중심이 되며, 인간이 움직일 때마다 사물의 연관 체계로서 공간도 함께 변화합니다. 인간이 건축함과 거주함에 사유함을 잇을 때 고향 상실의 일어납니다. 이때 거주함에 대해 다시 배워야 합니다. 오늘날 거주 공간이 상실되어 탈공간의 시대에 살고 있는 인간은 잃어버린 고향에 대해 숙고하고, 고향을 되찾아야 합니다.

4) 다문화 사회의 윤리

다문화에 대한 태도

동화주의 : 이주민 문화와 같은 비주류 문화가 주류 문화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함

다문화주의 : 민족이나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고유한 문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

동화주의: 다문화 사회에서는 이주민들이 제대로 적응하고 정착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기존 사회에 대한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에서 벗어나 기존 사회의 고유한 정체성에 편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샐러드 그릇 모델: 사회의 안정이란 다양한 가치와 차이를 말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맛과 향기를 가진 야채와 과일들이 하나의 그릇 속에서 뒤섞여 존재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맛을 내는 샐러드처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가운데 사회의 안정을 추구해야 합니다. 샐러드 그릇 속에서 어떤 야채가 더 중요하다고 결정할 수 없듯이, 보편적 도덕 원리에 어긋나는 문화적 현상을 제외한 모든 문화가 동등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문화 사회에서도 타자(他者)는 여전히 그들의 문화를 지켜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즉 원주민이든 이주민이든 한 사회 내에서 사회적 분위기와 억압을 이유로 자신의 문화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며, 여러 문화가 동등하게 인정되는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5) 로크의 관용

종교적인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관용하는 것은 신의 가르침과 이성이 일치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나는 자비와 온화함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의 자만과 무절제를 비난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결코 다른 종교에 대한 박해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잔혹함을 공화국에 대한 걱정과 법의 준수로 미화해서는 안 된다. 또한 종교를 구실로 도덕적 방종과 범죄로부터 자신이 면책되기를 바라서도 안 된다. 즉, 어느 누구도 왕의 신실한 신하이거나 신의 정직한 숭배자이건 간에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속여서는 안 된다.

15강. 평화와 윤리

1) 해외 원조에 대한 사상가들의 입장 정리

해외 원조의 윤리적 근거

- ① 의무의 관점 : 약소국 원조 그 자체를 윤리적 의무로 봄
- ② 자선의 관점 : 약소국 원조는 자유로운 선택의 문제로 자선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해외 원조에 대한 여러 사상가의 입장

칸트 : 의무론을 토대로 타인에 대한 선행의 실천을 도덕적 의무로 봄
 롤스 : 인권이 보장되고 민주적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질서 정연한 사회’가 그렇지 못한 ‘불리한 여건들로 고통받는 사회’를 돕는 것을 의무로 봄
 싱어 : 전 인류의 행복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공리주의에 입각해 모든 사람의 복지를 고르게 고려하고자 하므로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돕는 것이 의무라고 봄
 노직 : 정당하게 취득한 재산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강조하며, 원조는 개인의 자율적 선택이라고 봄

해외 원조에 대한 싱어의 견해

- 사람들은 왜 굶주리는가?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 부유한 나라의 농부들이 키운 곡물을 살 만한 여유가 없다. 가난한 나라의 농부들은 개량 종자나, 비료나, 우물을 파고 물을 끄는데 필요한 기계를 살 만한 여유가 없다. 부유한 나라에서 약간의 부를 가난한 나라들로 옮김으로써만 상황은 변화될 수 있다. ? (중략) ? 부유한 나라의 사람들은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지금보다 더 도와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돕지 않기 때문에, 절대 빈곤과 그에 수반하는 열악한 영양 상태, 나쁜 건강 그리고 죽음으로 고통받는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내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정부에만 해당되는 결론이 아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부를 누리고 있는 개개인에게도 해당한다. 왜냐하면 우리들 각각은 그러한 상황에 대하여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나는 절대 빈곤과 그에 따른 기아, 열악한 영양 상태, 주거의 부족, 문맹, 질병, 높은 유아 사망률, 낮은 평균 수명 등을 나쁜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리고 또 도덕적으로 중요한 일을 희생시키지 않고 절대 빈곤을 감소시키는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풍요한 사람들에게 있다고 가정한다. 만일 이 두 가정과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원칙이 올바르다면, 우리는 절대 빈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도울 의무를 갖게 된다. 도움을 주는 행위는 칭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닌 그러한 자선적인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마땅히 해야만 하는 그러한 것이다.

- 피터 싱어, “실천 윤리학” -

▶ 자료는 해외 원조에 관한 싱어의 분석을 담고 있다. 그는 전 인류의 행복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공리주의에 입각해 모든 사람의 복지를 고르게 고려하고자 하므로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돕는 것이 의무라고 보았다.

싱어: 만민에게 원조는 공정하게 부담해야 할 전 지구적 의무이다.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고 남은 소득이 있으면 소득의 일부를 기부하여 세계의 빈민을 도와야 한다. 내가 돕는 사람이 나에게서 내 이웃의 아이인지,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인지는 도덕적으로 아무런 차이도 없다. 굶주림과 죽음에 대한 방치는 인류 전체의 고통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노직: 부유한 나라가 약소국을 돕는 것은 선물을 주는 것과 같다. 선물을 준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하지만 선물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릇된 행위로 볼 수는 없다. 선물을 주는 것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될 수 없으며, 그런 이유로 하지 않는 이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없다.

노직: 원조는 자율적 선택의 문제입니다. 개인은 사적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국가가 원조를 위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롤스: 만민에게는 정의롭거나 적정 수준의 정치 체제와 사회 체제의 유지를 저해하는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는 다른 만민을 원조할 의무가 있다. 국제 원조는 '고통을 겪고 있는 사회'라고 부르는 심각한 정치, 사회 문화적 어려움에 처한 국가들이 그러한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스스로의 일을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롤스: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것은 윤리적 의무입니다.

실전 모의고사 1회 해외원조

- 제시문

A 사상가는 원조의 의무는 고통받는 사회가 '입헌적 자유주의 사회'나 적정 수준의 사회'를 만드는 데 있다고 본다.

그는 원조의 목적을 단지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로 통합시키는 데 두고 있다.

하지만 나는 원조의 의무는 만민이 공정하게 분담해야 할 전 지구적 의무라고 본다.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고도 남는 소득이 있으면 소득의 일부를 기부하여 세계의 빈민을 도와야 한다. 나는 A사상가가 ㉠고 본다.

- 선지

- ① 빈곤의 원인이 사회 제도의 결함에서 기인하는 것임을 모르고 있다.
- ② 국가 경계를 넘어 인류 전체의 공리를 증진해야 함을 간과 하고 있다.
- ③ 원조는 인권 존중과 민주적 의사 결정에 바탕을 둔 의무임을 모르고 있다.
- ④ 모든 빈곤 문제는 약소국이나 빈민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착각하고 있다.
- ⑤ 차등의 원칙을 국제 사회에 적용하여 절대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착각하고 있다.

- 해설: 원조에 대한 싱어와 롤스의 관점 이해

문제분석 : 제시문의 '나'는 싱어이고, 'A 사상가'는 롤스이다. 롤스는 원조를 통해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로 변화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본다.

② 롤스는 국가 경계를 기준으로 원조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본다.

- 오답피하기

- ① 롤스는 빈곤의 원인이 사회 제도의 결함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 ③ 롤스는 해외 원조가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 ④ 롤스는 원조를 약소국에 대한 의무라고 본다.
- ⑤ 롤스는 차등의 원칙을 원조와 같은 국제 사회 문제에 적용하지 않는다.

실전 모의고사 2회 해외원조

- 주의해야 할 부분: 쉽다. ③이 틀린 선지라는 것 잘 챙겨갈 것. ④에서 롤스는 질서 정연한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은 원조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오직 고통 받는 사회를 대상으로 원조해야 한다고 본 점을 체크하자.

- 제시문: 롤스

원조의 역할은 고통받는 사회의 구성원이 만민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완전한 성원이 되도록, 그리고 그들 스스로 자신이 살아갈 미래의 경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만민에게 중요한 것은 자유롭고 적정 수준을 갖춘 질서 정연한 사회에서 올바른 근거에 따라 확립한 정의와 안정성이다.

- 선지

- ① 원조받는 모든 사회가 동등한 복지 수준에 도달하도록 도와야 한다.
- ② 원조의 궁극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의 자유와 평등을 확립하는 것이다.
- ③ 전 지구적인 경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차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 ④ 어떤 사회인지를 구분하지 말고 빈곤으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사람을 도울 의무가 있다.
- ⑤ 고통받는 사회에 속한 최소 수혜자의 처지를 개선하는 것을 원조의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

- 해설: 해외 원조에 대한 롤스의 입장 이해

- 문제분석 : 제시문은 해외 원조를 의무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롤스의 입장이다. 롤스는 해외 원조의 목적을 경제적인 빈곤을 벗어나는 데 두지 않고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로 만드는 데 있다고 본다.

- 정답찾기: ② 롤스는 원조를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의무로 부과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롤스에게 원조의 목적은 사회적 자유와 평등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 오답피하기

- ① 롤스는 원조의 목적을 원조받는 모든 사회의 동등한 복지 수준의 실현에 두지 않았다. 그는 질서 정연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원조를 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③ 롤스는 원조의 목적을 전 지구적 경제 불평등의 해소에 두지 않았다. 또한 차등의 원칙 실현을 원조의 목표로 삼지 않았다.
- ④ 싱어의 입장이다. 싱어는 해외 원조를 의무의 차원에서 접근하였고, 어떤 사회에 사는 사람인지를 구분하지 말고 빈곤으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사람이 원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⑤ 롤스는 최소 수혜자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것을 원조의 목적이나 핵심 과제로 보지 않았다.

실전 모의고사 3회 9번 해외원조

- 주의해야 할 부분: 롤스의 원조의 목적은 원조 대상국(고통받는 사회) 인권(자유, 평등)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는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로 만드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번 수능에 나오면 절대로 맞추시길 바랍니다.

- 제시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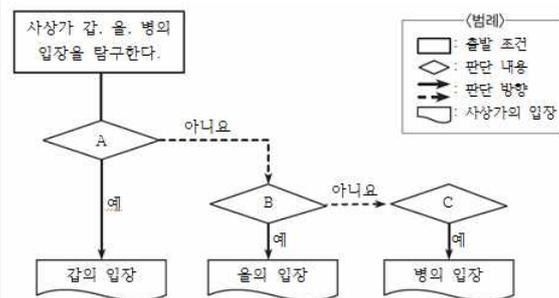
갑(노직) : 원조는 ‘소유 권리론’에 근거해 ‘각자는 자신이 선택한대로 주고, 각자는 자신이 선택된 대로 받는 것’이라는 원칙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을(싱어) : 원조는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며, 친소(親疏)에 따라 이루어져서도 안 된다. 원조는 생명을 구하는 것, 고통을 줄이는 것, 사람들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에 맞춰져야 한다.

병(롤스) : 원조는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이 합당하게 자유적 사회의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 또는 적정 수준의 위계적 사회의 구성원이 될 때까지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어야 한다.

- 선지:

(나)



<보기>

- ㄱ. A : 원조의 목적은 경제적 불평등을 조정하는 분배 정의의 실현인가?
- ㄴ. B : 원조의 목적은 세계 시민적 차원에서의 공리의 증진인가?
- ㄷ. B : 원조는 개인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 할 국제적 과제인가?
- ㄹ. C : 원조의 목적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회의 자유와 평등의 확립인가?

- 해설: 원조에 관한 노직, 싱어, 롤스의 입장 비교

문제분석 : 갑은 원조를 소유 권리론에 기초해 이해하는 노직, 을은 세계 시민주의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싱어, 병은 국제주의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롤스이다.

정답찾기 : ㄴ. 싱어는 원조를 공리주의와 세계 시민주의적 관점에서 이해한다.

ㄷ. 롤스는 원조의 목적을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회가 자신의 문제들을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본다. 그에게 원조의 목적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회들이 자유적 사회로서 인권(자유, 평등)을 확립하는 것이다.

오답피하기 : ㄱ. 노직은 자유 지상주의자로서 소유에 관한 절대적 권리를 정의로 이해한다. 따라서 원조를 경제, 사회적 불평등을 조정하는 분배 정의의 실현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ㄹ. 싱어는 개인, 국가, 국제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원조에 대해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전 모의고사 4회 해외원조

- 제시문:

롤스 : 국제 원조는 ‘고통을 겪고 있는 사회’라고 부르는 심각한 정치,사회 문화적 어려움에 처한 국가들이 그러한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스스로의 일을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싱어 : 국제 원조는 지역과 국가의 경계를 넘어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의 삶을 개선함으로써 인류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인류에게는 이웃의 고통을 감소 시켜야 할 윤리적 의무가 있다.

- 선지: (갑(롤스)이 긍정/을(싱어)이 부정할 질문을 고르는 발문임)

- ①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로 만드는 것이 원조의 목적인가?
- ② 질서 정연한 사회에서의 빈민도 원조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가?
- ③ 빈곤의 문제는 정치?사회적 결함이 아닌 물질적 자원의 부족에 기인하는가?
- ④ 원조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인류의 복지를 위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가?
- ⑤ 원조는 개인의 자발적 선택에 맡겨야 하는 자선의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하는가?

- 해설: 해외 원조에 대한 롤스와 싱어의 입장 비교

- 문제분석: 갑은 국제주의적 관점에서 원조를 주장하는 롤스, 을은 세계 시민주의적 관점에서 원조를 주장하는 싱어이다. 롤스는 빈곤의 문제가 물질적 자원의 부족에 따르는 문제가 아니라 정치,사회적 제도의 결함 때문이라고 보아 사회 구조 개선 차원에서 원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싱어는 공리주의를 바탕으로 한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똑같이 고려해야 하므로 원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정답찾기: ①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롤스의 원조의 목적은 고통을 겪는 사회가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질서 정연한 사회로 확립되는 것이고, 싱어의 원조의 목적은 인류 전체의 공리 증진이다.

- 오답피하기:

- ② 을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싱어는 세계 시민주의적 관점에서 국적과 관계없이 빈민을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한다고 본다.
- ③ 갑이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롤스는 빈곤의 문제는 정치?사회적 결함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 ④ 갑은 부정, 을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인류의 복지 증진을 위해 원조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은 싱어만의 입장이다.
- ⑤ 갑, 을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롤스와 싱어 모두 원조는 의무의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실전 모의고사 5회 해외원조

- 주의해야 할 부분: ⑤를 싱어와 롤스 둘 다 부정한다는 점을 체크하자.

- 제시문: 갑, 을 모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싱어) : 도움을 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비용보다 클 경우, 인류에게는 이웃의 고통을 감소시켜야 할 윤리적 의무가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이익 관심은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하므로 우리는 절대 빈곤에 처한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 대해 원조를 해야 한다.

을(롤스) : 고통받는 국가에 대해서는 원조를, 무법 국가에 대해서는 압력 등을 사용하여 국제 관계가 궁극적으로 질서 정연한 국가들의 자유롭고 평등한 상호 관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단, 원조는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지 못하게 하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여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그쳐야 한다.

- 선지:

- ① 해외 원조는 자선이 아니라 윤리적 의무인가?
- ② 해외 원조는 일정한 기준을 넘으면 중단해야 하는가?
- ③ 해외 원조의 대상에 모든 국가의 절대 빈곤층이 속하는가?
- ④ 해외 원조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가?
- ⑤ 해외 원조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 경제적 평등을 실현해야 하는가?

- 문제분석 : 갑은 세계 시민주의의 입장에서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 모두에게 원조를 해야 함을 주장하는 싱어이고, 을은 국가의 경계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고통받는 국가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원조를 해야 함을 주장하는 롤스이다.

- 정답찾기 : ⑤ 해외 원조의 목적을 싱어는 인류의 복지 증진에 두고, 롤스는 국제적 정의 실현에 둔다.

- 오답피하기 :

- ① 싱어와 롤스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 ② 롤스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롤스는 원조에는 차단점이 존재한다고 보아, 원조는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지 못하게 하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여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고 본다.
- ③ 싱어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 ④ 롤스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롤스는 국제 관계가 궁극적으로 질서 정연한 국가들의 자유롭고 평등한 상호 관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2) 칸트의 영구 평화론 정리

<p>평화를 위한 예비 조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차 전쟁의 화근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암암리에 유보한 채로 맺은 어떠한 평화 조약도 결코 평화 조약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다면 조약이란 모든 적대 행위의 종식을 뜻하는 평화가 아닌 적대 행위의 한낱 일시적 중지인 휴전에 불과한 것이 된다. 2. 어떠한 독립 국가도 (크고 작고에 관계없이) 상속, 교환, 매매 혹은 증여에 의해 다른 국가의 소유로 전락될 수 없다. 국가란 사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란 국가 자신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명령이나 지배를 받지 않는 인간의 사회이다. 국가는 그 자체 뿌리를 지닌 줄기와 같다. 3. 상비군은 조만간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상비군은 항상 전쟁에 대비한 준비가 되어 있음으로써 다른 나라들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다른 나라들과 끝도 없는 군비 경쟁에 돌입하게 된다. 4. 국가 간의 대외적 분쟁과 관련하여 어떠한 국채도 발행되어서는 안 된다. 열강들의 상호 대립에서 엄청나게 커져 가는 신용 체계는 당장의 요구에는 항상 안전한 채무이지만, 위험스러운 돈의 힘을 발휘하게 된다. 즉 그것은 전쟁을 위한 국채가 된다. ... (후략) ... <p>- 칸트, “영구평화론”-</p> <p>▶ 칸트는 국가 간 영구 평화를 위한 여섯 항목의 예비 조항을 제시하는데, 이는 영구 평화를 위한 일종의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칸트의 영구 평화론은 지나치게 이상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이를 통해 인간이야말로 도덕적 존재이며 도덕적 존재여야 한다는 그의 믿음이 국가 간 관계에서도 일관되게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p> <p>국가 간의 영구 평화를 위한 예비 조항</p> <p>첫째, 장래의 전쟁에 대비하여 물자를 비밀리에 간직해 두고서 맺어진 평화 조약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p> <p>둘째, 어떠한 독립 국가도 상속, 교환, 매수, 증여로써 다른 국가의 소유가 될 수 없다. 무릇 국가는 하나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p> <p>셋째, 상비군은 점차로 철폐되어야 한다. 상비군은 항상 전쟁을 위해 무장을 갖추고 있어서 끊임없이 다른 국가를 위협할 수 있다.</p> <p>넷째, 국가는 대외적인 분쟁과 관련하여 어떠한 국채도 발행해서는 안 된다. 금권을 가진 국가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쟁을 야기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p> <p>다섯째,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의 제도와 통치에 대해 폭력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p> <p>여섯째, 어떠한 국가도 다른 나라와의 전쟁 중에 장래의 평화 시기에 상호 신뢰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 틀림없는 다음과 같은 적대 행위, 예컨대 암살자나 독살자의 고용, 항복 조약의 파기, 적국에서의 반역 선동 등을 해서는 안 된다.</p>

3) 갈등의 평화론 정리

평화의 가치와 국제 평화의 중요성

(1) 평화의 의미와 가치 ▶갈등 평화론과 유사.

① 평화의 의미

소극적 평화 :

- 전쟁, 테러, 범죄와 같은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
- 물리적 폭력과 같은 직접적 폭력의 제거가 중요함
- 빈곤이나 인권 침해 같은 다양한 차원의 고통을 고려하지 않는 한계가 있음

적극적 평화 :

-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까지 모두 사라진 상태
- 문화적 차원이나 구조적 차원에서 폭력을 묵인하거나 정당화 하는 것까지 폭력으로 인식함
- 평화의 개념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인간 안보’ 차원으로 넓힘

② 적극적 평화의 의의

- 차별을 벗어나 인권을 보장받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집단 갈등을 해소하여 화합과 공존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음

갈등의 일시적 중지를 직접적 폭력과 거대 갈등을 평화로 종식하는 것과 동일시하지 마라. 그런 태도는 갈등의 뿌리가 되는 갈등을 심지어 은닉할 수도 있다. 평화 혹은 평화 과정은 갈등들이 미래에 좀 더 비폭력적으로 다루어지도록 모든 종류의 폭력을 줄이는 것이다. 폭력은 직접적?물리적 행위만이 아니라 비의도적이고 간접적이며 집합적인 계기, 즉 구조의 요소를 포함한다.

폭력은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비의도적이고 간접적인 구조 또한 포함한다. 언어, 예술, 종교, 이념 등과 관련된 문화적 폭력은 살인, 빈곤, 억압 등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폭력을 은폐하는 폭력의 유형이다. 이러한 폭력은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의도가 있는 것과 의도가 없는 것, 드러난 것과 감춰진 것 등 다양한 차원과 구별을 포괄하게 된다.

폭력은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비의도적이고 간접적인 구조 또한 포함한다. 언어, 예술, 종교, 이념 등과 관련된 문화적 폭력은 살인, 빈곤, 억압 등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폭력을 은폐하는 폭력의 유형이다. 이러한 폭력은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의도가 있는 것과 의도가 없는 것, 드러난 것과 감춰진 것 등 다양한 차원과 구별을 포괄하게 된다.

4) 아퀴나스와 왈처의 정의 전쟁론 정리

전쟁에 대한 다양한 입장

평화주의 : 무력은 어떤 경우에도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전쟁은 용인될 수 없음

현실주의 : 국가 간 관계에서 도덕적 고려는 필요 없고 오직 자국의 이익만 고려하면 되므로 이를 위해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보며, 힘의 균형을 통해 일시적 평화 유지가 가능함을 인정함

정의 전쟁론 : 전쟁은 도덕적으로 제약을 받아야 하지만 정의 실현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음 → 무고한 사람 보호, 부당하게 침해된 권리 회복, 적국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한 경우 등

* 칸트는 위에 적힌 평화주의자와 동일한 입장이 아니다. 칸트는 일부 전쟁(방어전 등)은 용인될 수 있다고 본다.(물론 궁극적으로는 영구 평화를 지향한다. 그렇다고 나쁜 나라가 침략했을 때 그냥 당하고 있으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아퀴나스: 전쟁은 찬양되어서는 안 되지만, 도덕적 제약을 전제로 최고의 합법적 권위에 의해 선포되는 경우와 나를 지키기 위해 적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

실전 모의고사 4회 왈처 정의 전쟁론

- 주의해야 할 부분: 왈처의 인도주의적 개입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한다. 4회차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 주목할 것.

- 제시문:

정의로운 전쟁은 제한된 전쟁이다. 정의로운 전쟁의 전시 행위는 비전투원에 대한 폭력과 강제의 사용을 가능한 한 억제 하도록 고안된 일련의 규칙들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이러한 규칙들의 '구속력'은 그다지 효과적이지는 못하나 효력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국제적인 경계를 넘는 무력 사용은 그 계기가 극단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독재 정치에서 행해지는 보통 수준의 만행 등의 사실은 외국이 그 나라에 침입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지방이나 나라의 인종 청소, 종교나 민족 공동체에 대한 조직적 학살 등 인류의 양심을 위협하는 사태를 막는 것은 도덕적 의무이다.

- 선지:

(관점) 전쟁은 정의 실현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관점) 전쟁 수행 과정에서 반드시 준수해야할 규칙들이 존재한다.

인권 침해를 명분으로 하는 전쟁은 언제나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불간섭주의에 입각하여 국가의 모든 문제는 그 국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 해설: 왈처의 정의 전쟁론이해

- 문제분석: 제시문의 사상가는 왈처이다. 왈처는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잔악성과 고통의 정도가 극심하고, 그 지역의 어떠한 세력도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개입이 도덕 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았다.

- 정답찾기:

첫 번째 관점: 왈처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잔학 행위가 일어날 경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 관점: 왈처는 정의로운 전쟁의 전시 행위는 비전투원에 대한 폭력과 강제의 사용을 가능한 한 억제하도록 고안된 일련의 규칙들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 오답피하기:

세 번째 관점 : 왈처는 인권 침해라고 해서 모두 전쟁의 명분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독재 정치에서 행해지는 보통 수준의 만행, 전통적 사회 관습의 일상적 가혹성 등 극단적이지 않은 상황은 개입의 계기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네 번째 관점: 왈처는 해당 국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개입은 도덕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았다.

실전 모의고사 5회 왈처 정의 전쟁론

- 제시문: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왈처) : 인도주의적 개입이 많이 남용되기도 하지만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잔악성과 고통이 극심하고, 그 지역의 어떤 세력도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는 인도주의적 개입은 도덕적으로 필요하다. 전쟁은 그 목적과 동기 그리고 수행 과정뿐만 아니라 전후의 처리도 정의로워야 한다.

을(현실주의) : 인도주의적 개입이라 불리는 것도 사실은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강대국의 위치에 불과하다. 국가 이익을 둘러싼 다툼에 보편적인 윤리가 들어설 곳은 없다.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타국에 관여하는 것은 바보같은 짓일 뿐이다.

- 선지:

- ① 전쟁을 평가할 보편적인 도덕적 원리는 없는가?
- ② 모든 전쟁이 정의 실현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가?
- ③ 해당 국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인도주의적 개입을 할 수 있는가?
- ④ 주권 존중 차원에서 타국의 어떠한 국내 문제에도 개입하지 말아야 하는가?
- ⑤ 비인도적 만행을 중단시킬 힘이 없는 국가에 대한 개입에 대해 도덕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가?

- 문제분석 : 갑은 정의 전쟁론을 주장한 왈처이고, 을은 현실주의적 입장을 지닌 사람이다.

- 정답찾기 : ⑤ 갑은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잔악성과 고통이 극심하고 그 지역의 어떤 세력도 문제 해결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인도주의적 개입이 도덕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반면에 을은 타국에 대한 개입에 대해서는 도덕적 정당화를 논할 수 없다고 본다.

- 오답피하기 : ① 을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② 갑, 을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③ 갑은 해당 국가의 요청과 관계없이 인도주의적 개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므로 갑이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④ 갑, 을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갑은 비인도적 행위가 저질러지고 있을 경우 개입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고, 을은 국가 이익 차원에서 개입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